2022.4.

국회예산정책처 I 경제 동향 I 제28호

NABO 경제 동향

NABO Economic Trends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본 원고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2년 4월호 통권 제28호

Contents

경제동향

Ⅰ. **지출** 6
- 1. 소비 7
- 2. 투자 12
- 3. 대외거래 16
- 4. 소비자물가 20

Ⅱ. **생산·고용** 22
- 1. 생산 23
- 2. 고용 44
- 3. 인구 49

Ⅲ. **금융·자산** 55
- 1. 금융 56
- 2. 에너지 및 원자재 62
- 3. 부동산 73

해외경제 동향
- 1. 미국 79
- 2. 중국 83
- 3. 유로지역 86
- 4. 일본 90

[**주요 경제정책 동향**] 93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주요 거시경제 지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20			2021					2022		
	연간	3분기	4분기	연간	2분기	3분기	4분기	12월	1월	2월	3월
전산업생산	-1.1	-0.7 (2.9)	-1.3 (1.3)	4.9	7.3 (0.6)	3.9 (0.9)	5.8 (1.5)	6.8 (1.3)	4.3 (-0.3)	4.3 (-0.2)	
광공업생산	-0.3	0.4 (5.7)	0.2 (2.6)	7.4	13.1 (-0.6)	5.8 (1.0)	6.5 (1.2)	7.4 (3.7)	4.3 (0.2)		
서비스업생산	-2.0	-1.7 (2.2)	-2.0 (0.9)	4.4	5.7 (1.7)	3.9 (1.1)	5.5 (1.5)	5.8 (-0.4)	4.8 (-0.3)		
소매판매액	-0.2	1.5 (-0.4)	-1.0 (1.1)	5.9	5.0 (2.2)	5.6 (0.8)	6.4 (1.1)	6.8 (2.2)	4.7 (-2.1)	1.6 (0.1)	
설비투자지수	5.9	7.7 (2.9)	3.0 (1.4)	9.6	13.2 (0.7)	6.2 (-0.8)	6.3 (-0.2)	6.6 (2.2)	0.1 (2.1)	2.1 (-5.7)	
건설기성액	-2.1	-2.2 (-2.5)	-3.2 (1.3)	-6.7	-7.2 (-1.9)	-8.1 (-1.1)	-2.9 (4.1)	0.5 (6.0)	6.0 (-0.4)	-4.7 (-8.5)	
수출(통관)	-5.5	-3.5	4.1	25.8	42.1	26.5	24.6	18.3	15.2	20.6	18.2
수입(통관)	-7.1	-8.7	-1.7	31.5	37.6	37.5	39.5	37.0	35.3	25.2	27.9
경상수지 (억달러)	759.0	244.9	337.4	883.0	194.2	256.5	208.9	60.6	19.2	64.2	
실업률	4.0	3.6	3.7	3.7	3.9	2.8	2.9	3.5	4.1	3.4	3.0
취업자수 (천명)	-218	-314	-441	369	618	577	660	773	1135	1037	831
소비자물가	0.5	0.7	0.5	2.5	2.5	2.5	3.5	3.7	3.6	3.7	4.1
원/달러환율	1,180	1,189	1,118	1,144	1,121	1,157	1,183	1,184	1,194	1,198	1,221
국고채금리 (3년)	0.99	0.85	0.95	1.39	1.19	1.45	1.87	1.80	2.06	2.29	2.37

주: 1. (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2. 국고채 수익률, 원/달러 환율은 기간 평균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PART 1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Ⅰ. 지출 ····· 6

1. 소비 ····· 7
2. 투자 ····· 12
3. 대외거래 ····· 16
4. 소비자물가 ····· 20

Ⅱ. 생산·고용 ····· 22

1. 생산 ····· 23
2. 고용 ····· 44
3. 인구 ····· 49

Ⅲ. 금융·자산 ····· 55

1. 금융 ····· 56
2. 에너지 및 원자재 ····· 62
3. 부동산 ····· 73

I

지 출

2월 중 「소매판매」는 비내구재와 준내구재의 감소를 내구재 판매 증가가 상쇄하여 소폭 상승

■ 소매판매(전월대비, %): ('21.12월)2.2 → ('22.1월)-2.1 → (2월)0.1

■ 내구재(전월대비,%): ('21.12월)3.1 → ('22.1월)-5.3 → (2월)9.4

2월 중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에서 모두 줄며 전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 전환

■ 설비투자지수(전월대비, %): ('21. 12월)2.1 → ('22. 1월)2.1 → (2월)-5.7

2월 중 「건설투자(건설기성액)」는 건축과 토목이 모두 줄며 전월대비 감소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21.12월)6.0 → ('22.1월)-0.4 → (2월)-8.5

■ 건축(전월대비,%): ('21.12월)2.5 → ('22.1월)0.1 → (2월)-8.5

■ 토목(전월대비,%): ('21.12월)18.2 → ('22.1월)-1.7(2월)-8.5

3월 중 「수출」은 월간 수출실적·일평균 수출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증가세 지속

■ 수출(전년동월대비,%): ('22.1월)15.5 → (2월)20.6 → (3월)18.2

■ 일평균수출(억달러): ('22.1월)25.2 → (2월)27.0 → (3월)27.6

3월 중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과 개인서비스 물가상승폭이 확대되며 전월보다 상승

■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4.1% 상승하여 2011년 12월(4.2%) 이후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22.1월)3.6 → (2월)3.7 → (3월)4.1
- 공업제품(전년동월대비,%): ('22.1월)4.2 → (2월)5.2 → (3월)6.9
- 개인서비스(전년동월대비,%): ('22.1월)3.9 → (2월)4.3 → (3월)4.4

1.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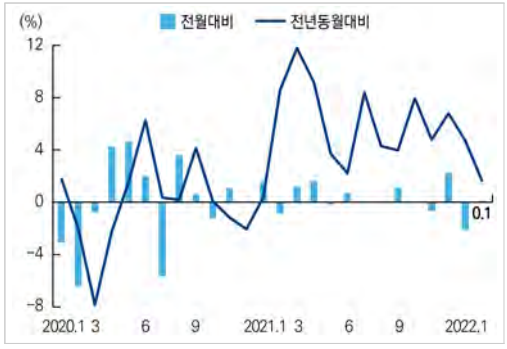
가. 소비

2월 「소매판매」는 전월대비 증가

■ **소매판매는 비내구재(-4.4%)와 준내구재(-0.6%)의 감소를 승용차 등 내구재(9.4%) 판매가 상쇄하여 소폭 상승**

- 소매판매(전월대비, %): ('21.12월)2.2 → ('22.1월)-2.1 → (2월)0.1
- 승용차 제외 소매판매(전월대비, %): ('21.12월)1.9 → ('22.1월)-1.4 → (2월)-1.4

[그림 1] 소매판매지수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재별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 **비내구재는 음식료품, 차량연료, 서적·문구 등의 판매가 줄면서 전월대비 4.4% 감소**

- 비내구재(전월대비,%): ('21.12월)2.6 → ('22.1월)0.3 → (2월)-4.4

■ **준내구재는 외부활동이 줄어든 여파로 신발·가방, 오락·취미·경기용품, 의복의 판매가 축소되며 전월대비 0.6% 감소**

- 준내구재(전월대비,%): ('21.12월)0.2 → ('22.1월)-3.7 → (2월)-0.6

■ **내구재는 승용차, 통신기기·컴퓨터, 가전제품 판매가 확대되어 전월대비 9.4% 증가**

- 승용차 판매는 신차 생산설비 교체에 따른 판매 확대, 수입차 및 친환경차 판매 증가 등으로 전월대비 13.3%,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 내구재(전월대비,%): ('21.12월)3.1 → ('22.1월)-5.3 → (2월)9.4

■ **소매업태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슈퍼마켓 및 잡화점(-17.6%), 대형마트(-20.9%)에서 판매가 감소하고 무점포소매(9.5%), 전문소매점(5.8%), 면세점(16.6%), 백화점(6.3%), 편의점(4.3%),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0.1%)에서 판매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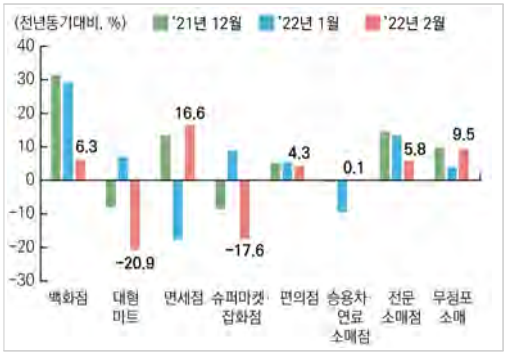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영향으로 무점포소매점의 판매가 증가하고 슈퍼마켓 및 잡화점의 판매가 감소
- 2021년에는 설 연휴가 2월 중순이었던 반면, 2022년에는 설 연휴가 1월 말에 시작하여 전년동월대비로 대형마트 판매액이 축소됨

* 무점포소매점은 매장없이 인터넷, 홈쇼핑, 배달, 방문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소매점을 의미

[그림 3] 승용차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4] 업태별 소매판매



자료: 통계청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상승

■ **소비자심리지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방역 조치가 완화된 영향으로 소폭 상승하여 103.2를 기록**

■ **소비자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항목[1] 가운데 생활형편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이 하락하고 소비지출전망이 상승**

- 소비지출전망(114)은 전월대비 4p가 상승하여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을 견인하였으며 2021년 11월(115)이후 가장 높은 수준
- 소비자심리지수: ('21.12월)103.8 → ('22.1월)104.4 → (2월)103.1 → (3월)103.2

1)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그림 5] 소비자심리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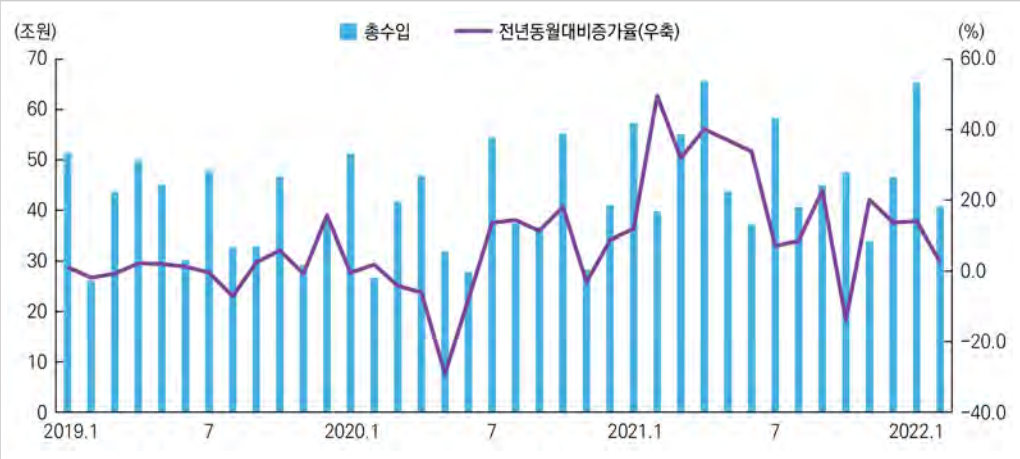
주: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21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
자료: 한국은행「소비자동향조사」

나. 재정수입 및 재정지출

2월「중앙정부 총수입」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총수입은 40.8조원으로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조원(2.5%) 증가**

[그림 6] 총수입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 **국세수입은 20.3조원으로, 소득세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4조원 증가**

- 소득세는 17.2조원으로, 고용회복 등에 따라 근로소득세 중심으로[2] 전년동월대비 5.2조원 증가
- 법인세는 1.2조원으로, 세정지원[3]에 따른 이연세수로 전년동월대비 0.3조원 증가
- 이에 반해, 부가가치세는 -4.6조원으로, 수출증가[4]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증가와 2021년 부가가치세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동월대비 3.3조원 감소
- 기타 세수는 6.5조원으로, 유류세 인하[5]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0.8조원 감소

■ **세외수입은 7.1조원으로, 한은잉여금(+0.4조원)[6]과 전파사용료 수입(+0.1조원)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6조원 증가**

■ **기금수입은 13.4조원으로, 국민연금 등 자산운용수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0조원 감소**

-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은 7.8조원으로, 2021년 자산시장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로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수익이 1.6조원 감소
- 다만, 취업자 수가 2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10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 고용상황이 개선되면서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기금 보험료수입은 증가[7]

[표 1] 중앙정부 총수입 현황

(단위: 조원)

	2021년				2022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2월	1~2월	추경	2월	1~2월	2월	1~2월
총수입	514.6	570.5	39.8	97.1	553.6	40.8	106.1	1.0	9.0
국세수입	314.3	344.1	19.0	57.8	343.4	20.3	70.0	1.4	12.2
- 소득세	99.5	114.1	12.1	23.8	105.8	17.2	30.4	5.2	6.7
- 법인세	65.5	70.4	0.9	2.9	74.9	1.2	4.1	0.3	1.2
- 부가가치세	69.3	71.2	△1.3	16.2	77.5	△4.6	19.8	△3.3	3.6
- 기타	80.0	88.4	7.3	14.9	85.2	6.5	15.7	△0.8	0.7
세외수입	29.3	30.5	6.5	8.2	26.1	7.1	8.9	0.6	0.7
기금수입	171.0	195.8	14.4	31.2	184.1	13.4	27.2	△1.0	△3.9
- 사회보장성기금[1]	99.5	124.5	9.4	20.4	104.8	7.8	15.8	△1.6	△4.5
세입세출외	-	0.1	0.0	0.0	-	0.0	0.0	-	-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기여금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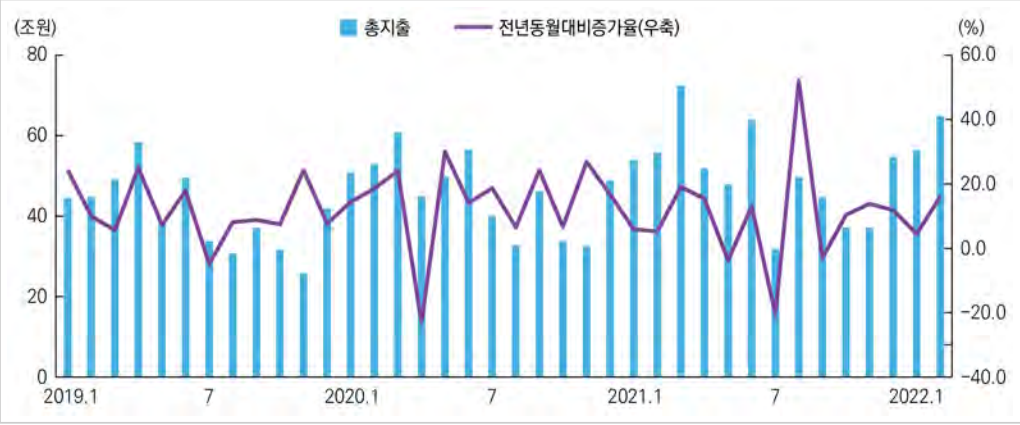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2) 상용근로자수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1,527만명으로 전년동기대비 4.6% 증가
3) 2021년 8월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기한을 8월에서 11월로 연장함에 따라 납부세액 중 분납세액 1.2조원이 2021년 10월에서 2022년 1월로 이연됨
4)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실적」에 따르면, 수출실적은 2021년 11월 603억불(전년동월대비 31.9%), 12월 607억불(18.3%), 2022년 1월 553억불(15.2%)임
5)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 20%를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인하
6) 전년도 글로벌 주가호조 및 환율상승 등으로 한은이 운용하는 외화자산의 운용수입(원화 기준)이 2021년 5.1조원에서 2022년 5.5조원으로 증가
7) 2022년 2월 사회보험기금 보험료수입은 12.4조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2월 「중앙정부 총지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총지출은 64.9조원으로 기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8.9조원(16.1%) 증가

[그림 7] 총지출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 예산은 41.6조원으로, 특별회계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0.5조원 감소

- 특별회계는 6.4조원으로, 동절기 공사중단, 시멘트 및 철근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집행 부진 등으로 SOC분야에서 전년동월대비 0.8조원 감소

■ 기금은 23.2조원으로,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4조원 증가

- 사회보장성기금 지출은 5.3조원으로, 청년추가고용지원금(-0.4조원)을 중심으로 고용보험 지출이 0.6조원 감소하였으나 국민연금 급여지급(+0.7조원)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0.2조원 증가

[표 2] 중앙정부 총지출 현황

(단위: 조원)

	2021년				2022년(잠정)			전년동월대비	
	추경	결산	2월	1~2월	추경	2월	1~2월	2월	1~2월
총지출	604.9	600.9	56	109.8	624.3	64.9	121.2	8.9	11.4
예산	409.7	398.9	42.2	80.8	417.2	41.6	80.6	△0.5	△0.1
일반회계	348.8	339.7	35	68.6	354.4	35.3	71.1	0.3	2.4
특별회계	60.9	59.1	7.2	12.1	62.8	6.4	9.6	△0.8	△2.5
기금	195.2	199.6	13.8	29.1	207.1	23.2	40.5	9.4	11.5
사회보장성기금1)	63.2	64.4	5.2	10.8	64.8	5.3	10.9	0.2	0.1
세입세출외	-	2.5	0	0	-	0	0	0	0

주: 1)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기금

자료: 기획재정부「월간재정동향」

2.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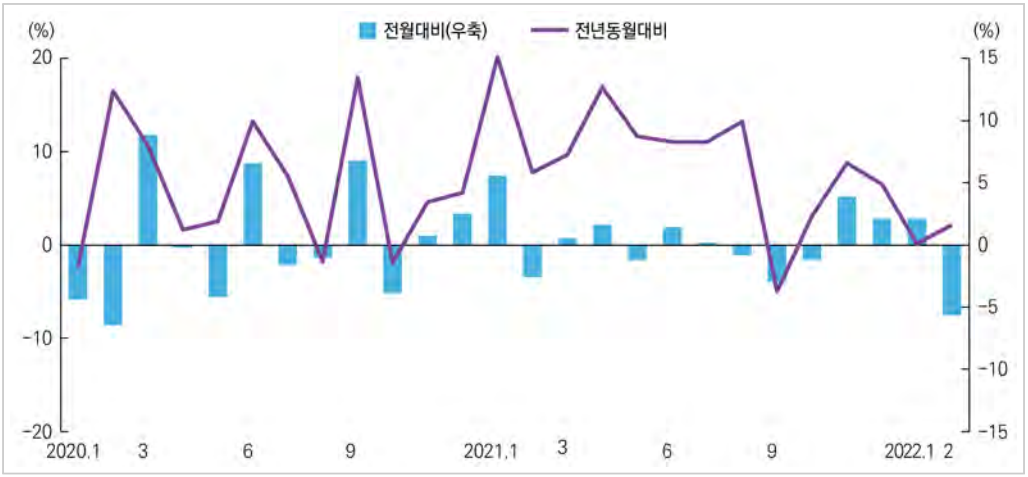
가. 설비투자

2월 중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감소 전환

■ **설비투자는 기계류에서 전월(-1.5%)에 이어 1.2% 감소하고 선박 등 운송장비에서 17.9% 줄며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5.7% 감소**

- 기계류(-1.5%) 투자는 전기 및 전자기기(5.5%), 정밀기기(3.7%) 등에서 늘었으나, 특수산업용기계(-7.7%) 등의 일반기계류(-4.6%)에서 감소
- 운송장비(-17.9%) 투자는 자동차(9.8%)에서는 전월(-0.5%)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 전환되었으나,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44.9%)에서 큰 폭으로 줄며 부진
- 전년동월대비로는 기계류(2.1%)와 운송장비(2.4%)에서 모두 늘며 2.1% 증가하여 전월(0.1%)보다 소폭으로 증가폭이 확대

[그림 8] 설비투자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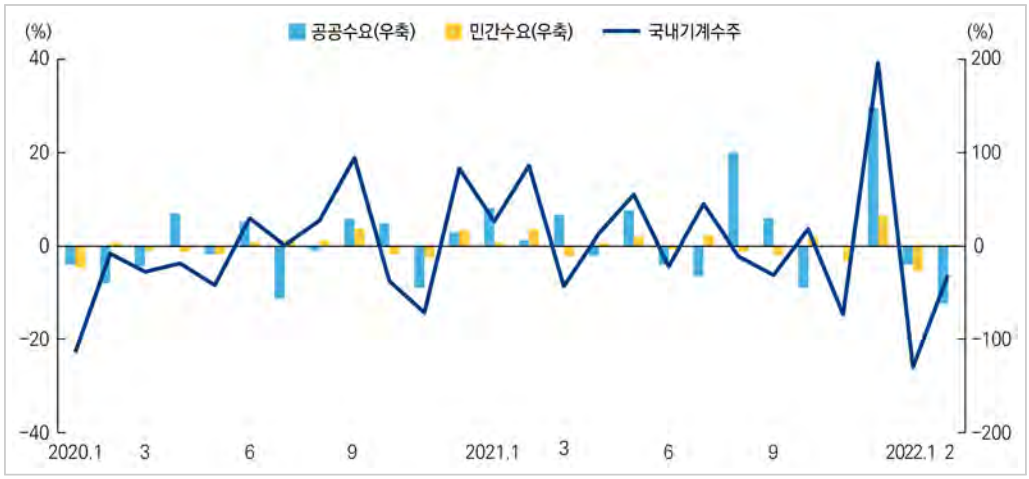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월 중 설비투자의 주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와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감소, 「기계류 수입액」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전환

■ 국내기계수주(-6.2%)는 민간부문(제조업 2.8%, 비제조업 -0.4%)에서 1.6% 증가하였으나, 공공부문은 전월(-19.9%)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며 61.8% 감소

■ 기계류 내수출하는 전월대비 6.8% 줄며 4개월 만에 감소 전환

[그림 9] 국내기계수주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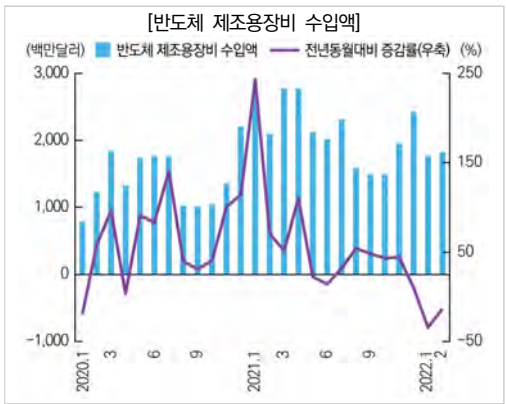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기계류 수입액은 기초산업기계(-11.1%)와 반도체 제조용장비 등 정밀기계(-11.1%)에서 줄었으나 산업기계(14.5%), 수송기계(18.7%) 등에서 늘며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65.6억 달러)은 전월(-34.3%)에 이어 13.3% 줄었으나 감소폭은 축소

[그림 10] 기계류 및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

자료: 무역협회, 통계청



자료:

나. 건설투자

2월 중 「건설기성」은 전월대비 감소

■ **건설기성은 건설자재 가격 상승 및 수급 불안에 따른 공기지연과 반도체 공장 증설 공정 지연이 맞물리며 건축 공사(-8.5%)와 토목 공사(-8.5%)가 모두 줄어 2015년 3월(-8.5%)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시현**

- 건설기성액(전월대비,%): ('21.12월)6.0 → ('22.1월)-0.4 → (2월)-8.5
- 건축(전월대비,%): ('21.12월)2.5 → ('22.1월)0.1 → (2월)-8.5
- 토목(전월대비,%): ('21.12월)18.2 → ('22.1월)-1.7(2월)-8.5
- 건설공사비지수(전년동월대비, %): ('21.12월)14.0 → ('22.1월)14.3 → (2월)14.0

■ **전년동월대비로도 건축(-1.3%)과 토목(-14.1%)이 모두 줄어 4.7% 감소**

- 건설기성액(전년동월대비,%): ('21.12월)0.5 → ('22.1월)6.0 → (2월)-4.7

[그림 11] 건설기성(불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2] 공종별 건설기성(불변)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 **건축부문(경상)은 주거용 건축(15.9%)이 증가를 이끈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0.4% 상승**

- 건축(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2월)18.4 → ('22.1월)21.7 → (2월)10.4
- 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2월)25.7 → ('22.1월)19.1 → (2월)15.9
- 비주거용(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2월)7.9 → ('22.1월)25.9 → (2월)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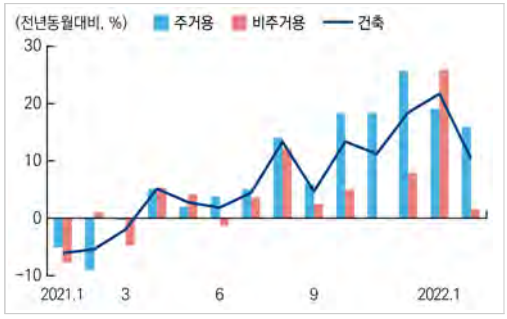
■ **토목부문(경상)은 플랜트(15.9%)가 늘어났으나 일반토목(-16.7%), 전기기계(-11.8%)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3.7% 증가**

- 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월)2.1 → ('22.1월)9.6 → (2월)-3.7
- 일반토목(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2월)7.1 → ('22.1월)5.5 → (2월)-16.7
- 전기기계(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2월)-1.8 → ('22.1월)-2.2 → (2월)-11.8
- 플랜트(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2월)-3.3 → ('22.1월)19.3 → (2월)15.9

■ **발주자별 건설기성액(경상)은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서 각각 전년동월대비 2.2%, 8.8%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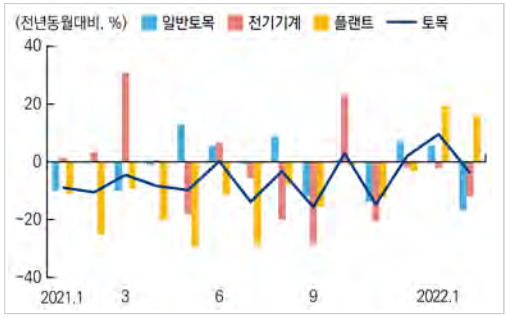
- 공공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2월)14.2 → ('22.1월)19.9 → (2월)2.2
- 민간기관(경상, 전년동월대비, %): ('21.12월)13.6 → ('22.1월)19.2 → (2월)8.8

[그림 13] 공종별 건축기성(경상)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그림 14] 공종별 토목기성(경상) 추이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2월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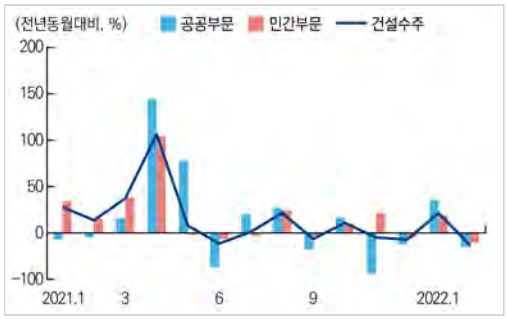
■ **건설수주는 토목(24.9%)이 늘었으나 건축(-19.5%)이 줄어 감소로 전환**

- 건축 수주는 사무실 및 점포는(30.9%)의 수주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택(-13.2%)과 공장 및 창고(-38.9%)의 수주가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19.5% 감소
- 토목 수주는 철도 및 궤도(1,616.2%), 상하수도(331.2%), 발전 및 통신(98.9%)이 증가하며 24.9% 증가
- 발주처별로는 공공부문(-14.7%)과 민간부문(-10.4%) 모두 토목의 수주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 수주가 부진하여 전체 수주가 감소
- 건설수주(전년동월대비, %): ('21.12월)-7.0 → ('22.1월)21.4 → (2월)-13.0

[그림 15] 공종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16]발주자별 수주(경상) 추이



자료: 통계청

3. 대외거래

가. 수출

2022년 3월 「무역수지」는 적자 전환

■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8.2% 늘어난 634.8억 달러로 17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22.1월)15.2 → (2월)20.6 → (3월)18.2

■ **일평균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3.4% 늘어난 27.6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 경신**

- 일평균수출(억달러): ('22.1월)25.2 → (2월)27.0 → (3월)27.6

■ **수입은 에너지 등 원자재 가격 급등과 중간재 수입확대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7.9% 증가한 636.2억 달러로 16개월 연속 증가세**

- 수입(전년동월대비,%): ('22.1월)35.3 → (2월)25.2 → (3월)27.9

■ **수출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수출대비 수입 증가폭이 확대되면서 무역수지는 2개월만에 적자 전환**

- 무역수지(전년동월대비,%): ('22.1월)-47.3 → (2월)8.3 → (3월)-1.4

[그림 17] 수출입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18]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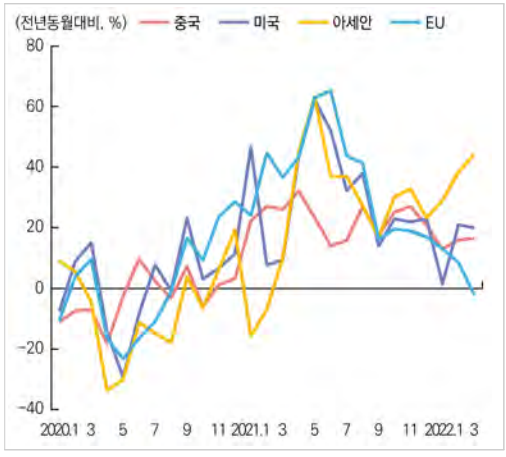
■ 지역별로 견조한 수출증가세가 이어졌으나, EU와 CIS 지역으로의 수출이 감소

- 대미국 수출(전년동월대비,%): ('22.1월)1.8 → (2월)20.9 → (3월)19.9
- 대ASEAN 수출(전년동월대비,%): ('22.1월)29.4 → (2월)38.4 → (3월)44.4
- 대중 수출(전년동월대비,%): ('22.1월)13.3 → (2월)16.1 → (3월)16.6
- 대EU 수출(전년동월대비,%): ('22.1월)12.9 → (2월)8.6 → (3월)-2.0
- 대CIS 수출(전년동월대비,%): ('22.1월)27.4 → (2월)45.2 → (3월)-37.7
- 바이오헬스 수출이 감소하면서 19개월만에 마이너스 전환(전년동월대비 2.0% 감소)
- 러시아와의 교역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CIS 지역으로의 수출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영향으로 자동차, 일반기계, 차부품 등이 감소하며 13개월만에 감소 전환(전년동월대비 37.7% 감소)

[그림 19] 2022년 3월 중 지역별 수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20] 지역별 수출 증가율 추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나. 경상수지

2022년 2월「경상수지」흑자

■ **경상수지는 상품수지(42.7억 달러 흑자) 흑자규모가 전년동월보다 축소했으나 해상화물 운송수입(43.5억 달러)이 증가하면서 흑자 기록**

- 경상수지(억달러): ('21.12월)60.6 → ('22.1월)19.2 → (2월)64.2
- 상품수지(억달러): ('21.12월)44.8 → ('22.1월)8.2 → (2월)42.7

■ **상품수지는 수출(538.7억 달러)이 수입(496.0억 달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42.7억 달러 흑자를 기록**

- 상품수지(억달러): ('21.12월)44.8 → ('22.1월)8.2 → (2월)42.7

[그림 21] 항목별 경상수지

자료: 한국은행

■ **서비스수지는 여행수지가 적자를 유지하였으나, 해상화물 운송수입 증가로 운송수지 흑자폭이 늘면서 전년동월보다 흑자규모가 확대**

- 서비스수지(억달러): ('21.12월)-2.4 → ('22.1월)-4.9 → (2월)5.7
- 여행수지(억달러): ('21.12월)-6.7 → ('22.1월)-5.6 → (2월)-4.5
- 운송수입(억달러): ('21.12월)60.6 → ('22.1월)19.2 → (2월)64.2
- 운송수지(억달러): ('21.12월)16.1 → ('22.1월)23.2 → (2월)19.0

[그림 22] 운송수입과 SCFI[8] 지수 추이

자료: 한국은행, Shanghai Shipping Exchange, SCFI

■ **본원소득수지는 이자소득수지(7.9억 달러 흑자)가 전년동월보다 증가하였으나, 배당소득수지(8.8억 달러 흑자)가 전년동월보다 흑자폭이 소폭 줄면서 축소**

- 본원소득수지(억달러): ('21.12월)24.7 → ('22.1월)18.8 → (2월)17.1
- 배당소득수지(억달러): ('21.12월)17.1 → ('22.1월)11.4 → (2월)8.7
- 이자소득수지(억달러): ('21.12월)8.4 → ('22.1월)7.9 → (2월)8.8

8) 상하이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상하이거래소(Shanghai Shipping Exchange: SSE)에서 2005년 12월 7일부터 상하이 수출컨테이너 운송시장의 15개 항로의 스팟(spot) 운임을 반영한 운임지수

4. 소비자물가

2022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기대비 상승

■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0.4%)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나 공업제품(6.9%)과 개인서비스(4.4%) 물가의 오름폭이 확대되며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월)3.6 → (2월)3.7 → (3월)4.1
- 근원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월)22.6 → (2월)2.9 → (3월)2.9

[그림 23]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4] 주요 품목별 소비자물가상승률 기여도

자료: 통계청

■ **농축수산물 물가는 축산물(7.6%) 물가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농산물(-3.8%) 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월(1.6%)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0.4% 기록**

- 농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월)4.6 → (2월)-2.3 → (3월)-3.8
- 축산물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월)11.5 → (2월)8.8 → (3월)7.6

[그림 25] 농축수산물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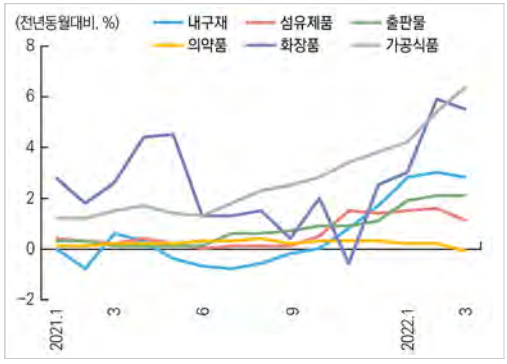
[그림 26] 개인서비스 물가 추이

자료: 통계청

■ **서비스물가의 경우 공공서비스 물가의 상승폭 둔화(0.6%)에도 불구하고 외식서비스(6.6%) 물가의 상승세가 지속되며 3.1% 상승**

- 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월)2.9 → (2월)3.1 → (3월)3.1
- 공공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월)0.9 → (2월)0.9 → (3월)0.6
-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월)3.9 → (2월)4.3 → (3월)4.4
- 외식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월)5.5 → (2월)6.2 → (3월)6.6

[그림 27] 공업제품 품목별 상승률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8] 석유류제품 가격과 국제유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Bloomberg

■ **공업제품 물가는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으로 석유류(31.2%), 가공식품(6.4%) 등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9% 상승**

- 공업제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월)4.2 → (2월)5.2 → (3월)6.9
- 석유류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월)16.4 → (2월)19.4 → (3월)31.2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전년동월대비,%): ('22.1월)4.2 → (2월)5.4 → (3월)6.4
- 국제유가 (3개유종 평균, 달러/배럴): ('22년.1월)83.9 → (2월)93.5 → (3월)112.4

Ⅱ

생산·고용

2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에 이어 감소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1. 12월)1.3 → ('22. 1월)-0.3 → (2월)-0.2**

■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8개월 연속 하락하였으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가 지속**

2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모두 증가하였고 11대 산업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서비스업 「생산」이 소폭 감소

■ **2월 제조업 생산은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제조업생산(전년동월대비, %):('21.12월)7.4 → (1월)4.3 → (2월)6.2
- 반도체(전년동월대비, %):('21.12월)29.7 → (1월)30.5 → (2월)31.3
- 자동차(전년동월대비, %):('21.12월)7.7 → (1월)-9.2 → (2월)3.7

■ **2월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 및 음식점 등에서 늘어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0.3% 감소**

- 서비스업생산(전년동월대비, %):('21.12월)5.8 → (1월)4.7 → (2월)3.8
- 서비스업생산(전월대비, %):('21.12월)-0.4 → (1월)-0.4% → (2월)-0.3
- 숙박 및 음식점(전년동월대비, %):('21.12월)38.4 → (1월)37.6 → (2월)11.1

■ **3월 반도체, 화학, 철강 등 11대 산업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8.6% 증가하여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6.0% 증가로 전환**

- 11대 산업 수출(전년동월대비, %):(1월)16.1 → (2월)22.5 → (3월)8.6
- 11대 산업 수출(전월대비, %):(1월)-8.4 → (2월)-3.0 → (2월)6.0

3월 중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월에 비해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회복 흐름이 지속

■ **전체 취업자 수 증감(전년대비, 만명): ('22.1월)113.5 → (2월)103.7 → (3월)83.1**

1.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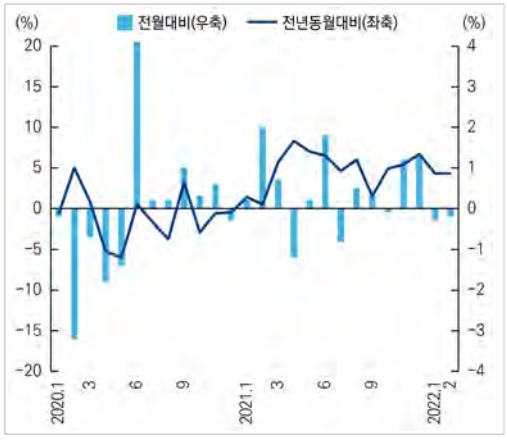
가. 생산

2월 중 「전산업생산」은 전월에 이어 감소

■ **전산업생산(-0.2%)은 서비스업(-0.4% → -0.3%)에서 3개월 연속 감소하고 건설업(-0.4% → -8.5%)에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며 전월(-0.3%)에 이어 감소**

- 광공업(0.6%)은 반도체(10.1%), 전자부품(5.6%) 등을 중심으로 늘며 전월(0.3%)보다 증가폭이 확대
- 서비스업(-0.3%)은 숙박·음식점(-4.0%), 예술·스포츠·여가(-7.3%) 등의 대면서비스업종 등에서 줄며 3개월 연속 감소세가 지속되는 모습
- 건설업(-8.5%)은 건축(0.1% → -8.5%)과 토목(-1.7% → -8.5%)에 모두 전월에 비해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며 부진
- 전년동월대비로는 광공업(4.2% → 6.5%)과 공공행정(1.2% → 5.1%)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업(4.7% → 3.8%)에서 증가폭이 둔화되고 건설업(6.0% → -4.7%)에서 감소 전환되며 전체적으로 전월과 동일한 4.3% 증가폭 유지

[그림 1] 전산업생산 월별 추이



자료: 통계청

[그림 2] 부문별 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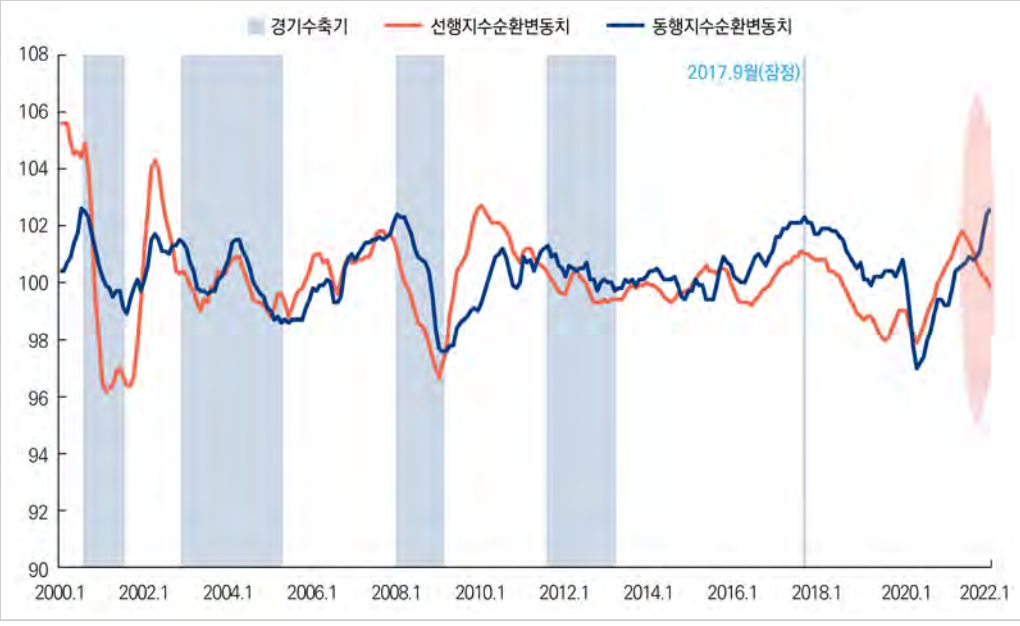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월 중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였으나,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모습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2.6)는 구성지표 중 서비스업생산지수와 건설기성액에서 감소하였으나 광공업생산, 소매판매액,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에서 증가하여 전월대비 0.2p 상승

■ 반면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99.8)는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등 모든 구성 지표에서 감소하며 전월(100.1)보다 0.3p 하락하였고, 지난 6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세가 지속되는 모습

[그림 3]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주: 1) 순환변동치는 종합지수에서 비경기적 요인(계절요인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지표
2)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 광공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 내수출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3) 선행종합지수 구성지표: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내수출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자료: 통계청

나. 제조업

제조업: 2월 중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도 소폭 증가

■ **경기회복에 따라 반도체와 가전, 석유, 철강 산업 등의 생산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자동차 산업 생산도 증가로 전환되며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2% 증가**

- 반도체 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31.3% 증가하며 8개월 연속 30%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였고, 가전, 자동차, 석유, 철강 산업도 각각 22.4%, 3.7%, 3.0%, 2.7% 증가한 반면, 무선통신기기, 일반기계 산업은 각각 9.4%, 3.6% 감소

■ **전월대비로는 반도체, 자동차,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의 생산이 증가한 가운데, 일반기계, 화학, 조선 산업 등은 생산이 줄어 제조업 전체적으로 0.5% 증가**

- 반도체, 컴퓨터 주변장치, 자동차 산업 생산이 각각 10.1%, 4.0%, 1.4% 증가한 반면, 일반기계(-9.3%), 화학(-2.8%), 조선(-5.2%) 산업 등의 생산이 감소

[표 1] 제조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1				2022		
	1월	2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대비
제조업(원지수)	109.0	100.0	119.8	126.4	113.7	106.2	0.5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8.1	1.4	7.0	7.4	4.3	6.2	
반도체	19.6	19.7	33.9	29.7	30.5	31.3	10.1
자동차	19.6	23.3	-5.1	7.7	-9.2	3.7	1.4
화학	0.8	0.2	7.7	4.9	4.3	-1.6	-2.8
일반기계	18.8	5.6	6.7	8.0	1.0	-3.6	-9.3
철강	1.6	-6.6	3.0	-0.6	4.4	2.7	-1.7
조선	2.5	-30.0	-13.7	-9.9	-12.1	2.5	-5.2
석유	-9.6	-5.4	7.6	7.7	5.7	3.0	0.7
섬유	-0.8	-14.3	4.2	4.8	5.9	10.0	-1.7
무선통신기기	64.1	8.4	12.7	-0.8	-24.7	-9.4	-0.5
가전	15.6	6.7	8.8	-2.6	12.8	22.4	-1.5
컴퓨터 주변장치	0.0	-3.3	3.8	-3.7	-0.3	1.8	4.0

주: *표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주요 11대 산업[1]: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모두 증가

■ **반도체, 화학, 철강, 석유 산업이 수출 증가세를 이끈 반면, 자동차, 조선 산업은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8.6% 증가**

- 계속되는 글로벌 수요 회복 및 전방산업 경기 호조와 더불어 국제 정세에 따른 단가 상승의 효과로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주변장치 산업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38.0%, 44.5%, 41.1% 증가하였고, 철강, 석유 등 원자재 가공 산업 또한 각각 26.8%, 90.1% 증가

■ **전월대비로는 조선 산업이 13.5% 감소하였지만, 반도체(26.4%), 화학(13.1%), 일반기계(22.7%), 석유(30.7%) 산업 등의 수출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0% 증가**

[표 2] 수출 동향

(단위: 전년동월대비, %)

산업별	2021년					2022년				
	1월	2월	3월	11월	12월	1월	2월*	전월대비	3월*	전월대비
11대산업	9.7	8.1	15.9	39.7	20.8	16.1	22.5	-3.0	8.6	6.0
반도체	21.6	13.1	8.5	40.0	35.1	24.2	24.0	-4.0	38.0	26.4
자동차	26.4	26.7	14.3	1.5	10.4	6.0	5.6	-8.6	-6.5	9.4
화학	8.6	23.7	47.7	62.8	34.5	40.6	24.8	-4.9	14.8	13.1
일반기계	-5.0	-5.8	6.1	11.6	6.1	13.8	0.8	-13.8	3.0	22.7
철강	5.9	3.4	12.6	45.7	48.6	49.5	39.9	-9.6	26.8	6.4
조선	23.4	3.7	62.4	237.5	-49.0	-77.9	15.8	125.0	-35.9	-13.5
석유	-44.6	-12.2	19.1	120.7	80.2	96.6	66.8	8.7	90.1	30.7
섬유	-8.0	-24.0	8.9	17.0	12.1	22.1	15.2	-12.6	8.3	19.8
무선통신기기	57.5	10.0	5.9	16.4	4.4	-0.3	8.2	-5.9	44.5	45.5
가전	19.6	10.5	18.0	20.9	11.6	19.6	14.5	-9.2	7.5	15.8
컴퓨터 주변장치	21.6	7.8	2.6	31.9	16.7	23.7	41.5	-1.0	41.1	11.1

주: *표는 잠정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1) 자동차(수송기계), 반도체, 화학, 일반기계, 철강, 조선, 석유, 무선통신기기, 섬유, 가전, 컴퓨터 주변장치를 의미하며, 자동차는 자동차부품을 포함

[원자재 가격 변화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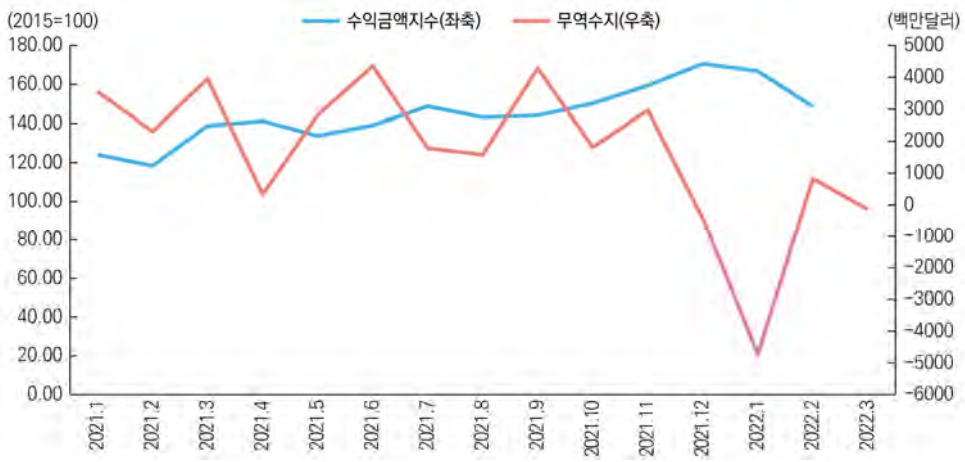
■ 한국은 원자재「수입」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

- 2020년 기준 한국의 1차산품 수입비중은 18.4%로 비슷한 산업구조를 가지며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일본(16.6%)과 독일(8.2%)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
- 2021년 한국의 수입 품목 중에서는 원유(10.9%), 천연가스(4.1%), 석탄(2.3%) 등 에너지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 원자재「수입 단가」의 급등은 한국의 무역수지 악화로 이어짐

- 1차산품, 중간재 등이 투입되어 생산된 최종재화를 수출하는 한국경제로서는 원자재 가격의 급등은 수입액 증가로 이어짐
-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는 2022년 3월 역대 월 수출 최고 실적을 달성하였음에도 이를 상회하는 수입액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

[수입금액에 따른 무역수지 변화]



주: 3월 수입금액지수는 한국은행에서 4월 28일 발표 예정
자료: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투입재화 가격 상승은「생산원가」상승 유발

- 자연재해, 국제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에 따른 원자재 가격 10% 상승은 기업 생산원가의 평균 0.43% 상승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2)]
- 비철금속, 철강제품, 석유화학, 금속제품 업종의 생산원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반도체 산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3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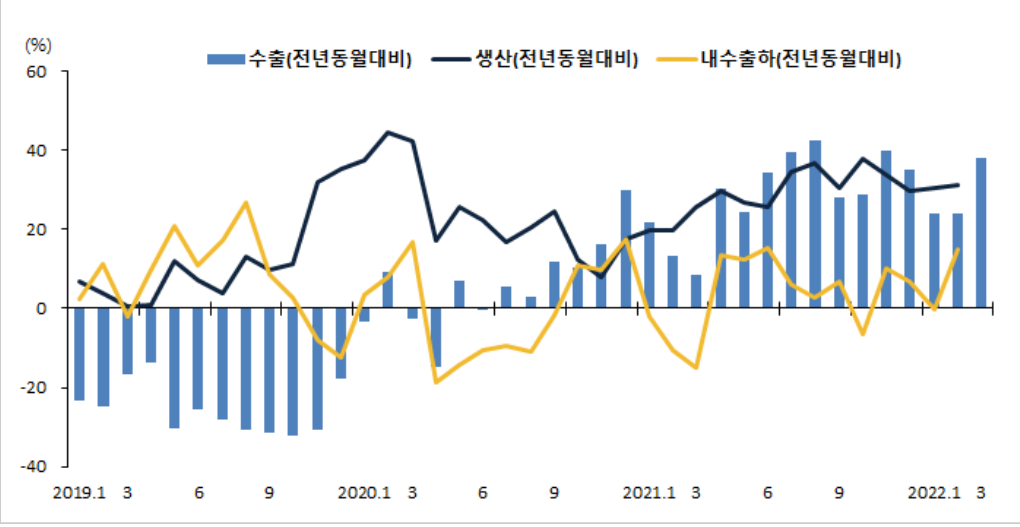
■ **2월 중 반도체 생산은 전방산업의 견조한 수요확대로 전년동월대비 31.3%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로도 10.1% 증가**

- 반도체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메모리 반도체의 D램과 낸드플래시가 각각 28.9%, 14.8% 증가하고, 시스템 반도체도 117.8% 증가함에 따라 31.3%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29.7 → ('22.1월)30.5 → (2월)31.3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6.0 → ('22.1월)4.5 → (2월)10.1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6.9 → ('22.1월)-0.2 → (2월)14.9

■ **3월 중 수출(131.2억 달러)은 전년동월대비 D램과 낸드플래시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 수출(53.7%), 대ASEAN 수출(39.5%), 대미 수출(48.9%) 등이 늘어 전년동월대비 38.0% 증가(사상 처음 130억 달러 돌파)**

- D램 고정가격(DDR4 8Gb, 달러): ('21.1~3월)3.00 → ('22.1~3월)3.41
- 낸드플래시 고정가격(128Gb 16Gx8 MLC, 달러): ('21.1~3월)4.20 → ('22.1~3월)4.81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35.1 → ('22.1월)24.2 → (2월)24.0 → (3월)38.0

[그림 4] 반도체 산업 생산·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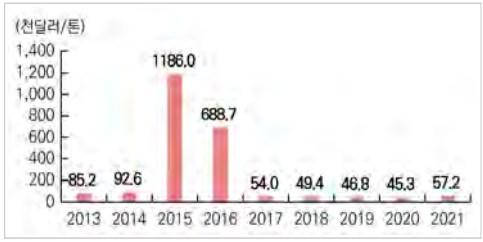
2) 무역협회, 주요 원자재 공급 구조 분석 및 가격 상승의 영향, Trade Focus 2022년 6호

[반도체용 주요 희귀가스 수입 동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반도체 원재료」에 대한 수급 우려가 제기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2월) 이후 우크라이나산 네온가스의 수입단가가 상승함
  - 과거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시(2014~2015년)에도 우크라이나산 네온가스의 수입단가가 상승(12.8배)한 사례가 있는 가운데, 2022년 2월 우크라이나산 네온가스의 수입단가는 톤당 24만 8천 달러로 전월대비 2.9배 상승함

[우크라이나산 네온가스 수입단가 추이(연도별)]



[우크라이나산 네온가스 수입단가 추이(월별)]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반도체용 주요 희귀가스의 대중, 대미 수입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침공사태로 인한 국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반도체 노광공정※에 사용되는 네온(23.0%) 및 3D 낸드플래시 등 반도체 식각공정※※에 사용되는 크립톤(30.7%), 크세논(17.8%) 등의 우크라이나 수입비중이 높은 수준임
  - 2021년 희귀가스 대중 수입비중(%): 네온(66.6), 크립톤(25.6), 크세논(9.2)
  - 2021년 희귀가스 대미 수입비중(%): 네온(5.1), 크립톤(21.1), 크세논(21.7)

※ 노광공정은 마스크에 빛을 통과시켜 웨이퍼에 회로를 그려 넣는 공정

※※ 식각공정은 반도체의 구조를 형성하는 패턴을 만드는 공정

[반도체용 주요 희귀가스 주요 국가 수입비중(2021년 기준)]

(단위: %)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미국
네온	5.3	23.0	66.6	5.1
크립톤	17.5	30.7	25.6	21.1
크세논	31.3	17.8	9.2	21.7

자료: 관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자동차 산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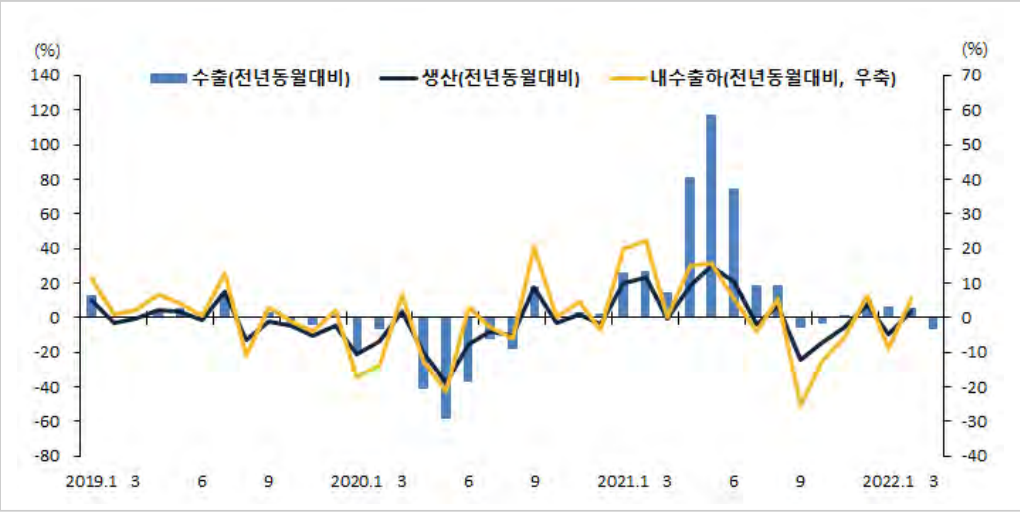
■ **2월 생산은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차 출시를 위한 설비 공사 완료에 따른 생산량 확대, 기저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1.4% 증가**

-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전년동월대비 0.3%, 2.4% 감소한 반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6.7% 증가
- 전월대비로는 자동차 차체 및 트레일러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3.0% 감소한 반면,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부문의 생산이 각각 2.5%, 0.8%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7.7 → ('22.1월)-9.2 → (2월)3.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4.4 → ('22.1월)3.3 → (2월)1.4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6.4 → ('22.1월)-8.9 → (2월)5.3

■ **3월 수출은 중동·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자동차 수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에 더하여,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대(對)CIS(독립국가연합) 지역으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전년동월대비 6.5% 감소**

- 세부 부문별로 자동차 부문은 전년동월대비 9.7% 감소하였고, 자동차 부품 부문은 차량용반도체 수급난, 코로나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가동중단 등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차 관련부품 수출증가로 0.03% 미미하게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10.4 → ('22.1월)6.0 → (2월)5.6 → (3월)-6.5

[그림 5] 자동차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화학 산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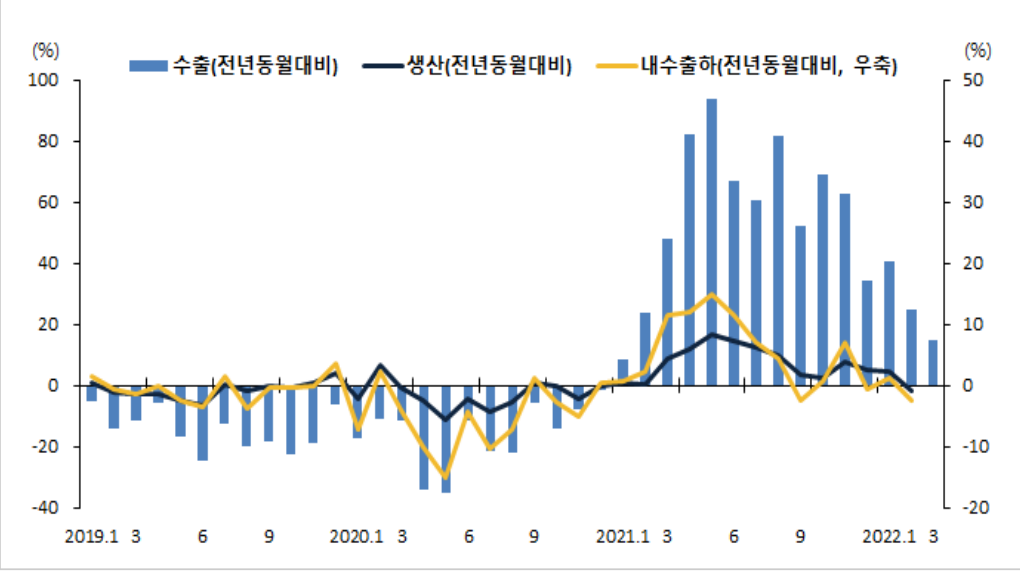
■ **2월 화학산업의 생산은 화학섬유 제조업과 비료 및 질소화합물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6%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도 2.8% 감소**

-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로 인한 생산중단과 주요 원료인 나프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화학섬유 제조업과 비료 및 질소화합물 생산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9.5%, 10.0%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로도 각각 14.1%, 4.9%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 4.9 → ('22.1월) 4.3 → (2월) -1.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 2.7 → ('22.1월) -0.6 → (2월) -2.8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 -0.7 → ('22.1월) 1.3 → (2월) -2.5
- 나프타 가격($/톤): ('21.3/4) 677 → ('21.4/4) 740 → ('22.1/4) 878

■ **3월 화학 산업의 수출은 건설 등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14.8%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1월(40.6%) 이후 둔화세**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2.1월) 40.6 → (2월) 24.8 → (3월) 14.8
- 석유화학 수출단가($/톤): ('21.3월)1,369 → ('22.3월)1,561(전년동월대비 14.0%)

[그림 6] 화학 산업 생산·내수출하·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기계 산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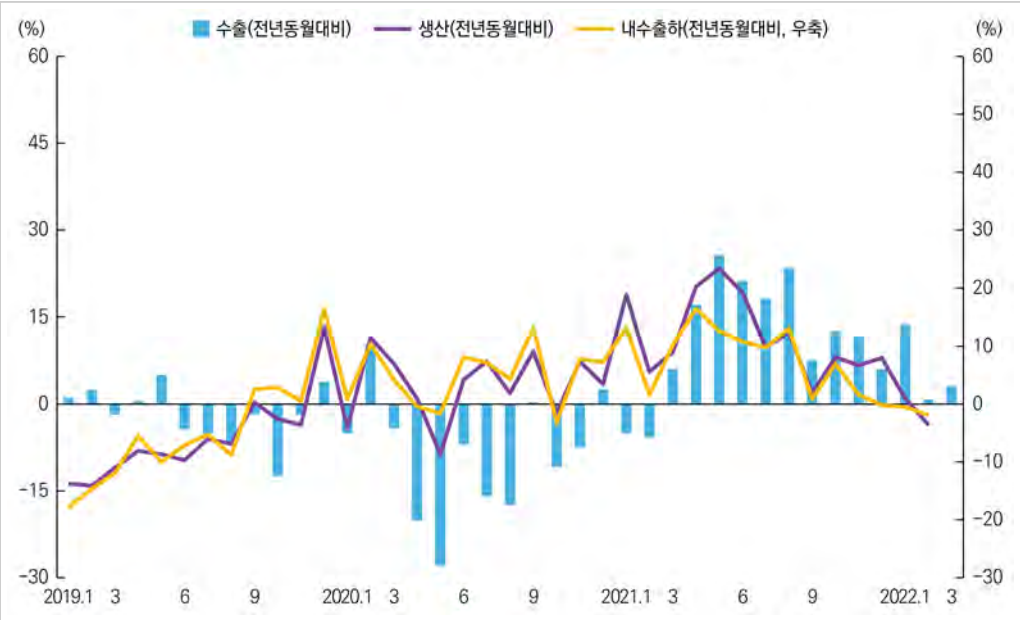
■ **2월 생산은 국내수요(-13.1%) 및 내수출하(-1.9%)의 감소로 재고(21.8%)가 증가하면서 16개월 만에 전년동월대비 3.6% 감소로 전환하였고, 전월대비로는 조업일수 부족(-2일)과 수주액(-13.5%) 감소의 영향으로 9.3%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8.0 → ('22.1월)1.0 → (2월)-3.6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6.4 → ('22.1월)-3.1 → (2월)-9.3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0.2 → ('22.1월)-0.5 → (2월)-1.9
- 수주액(선박제외,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48.5 → ('22.1월)-18.6 → (2월)-13.5

■ **3월 수출은 주력산업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공작기계 증가세와 더불어 미국 등 주요국의 인프라 투자가 지속되면서 건설기계 등의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며 13개월 연속 증가(역대 3월 수출액 중 1위 달성)**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6.1 → ('22.1월)13.8 → (2월)0.8 → (3월)3.0

[그림 7] 일반기계 산업 생산·수출·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철강 산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3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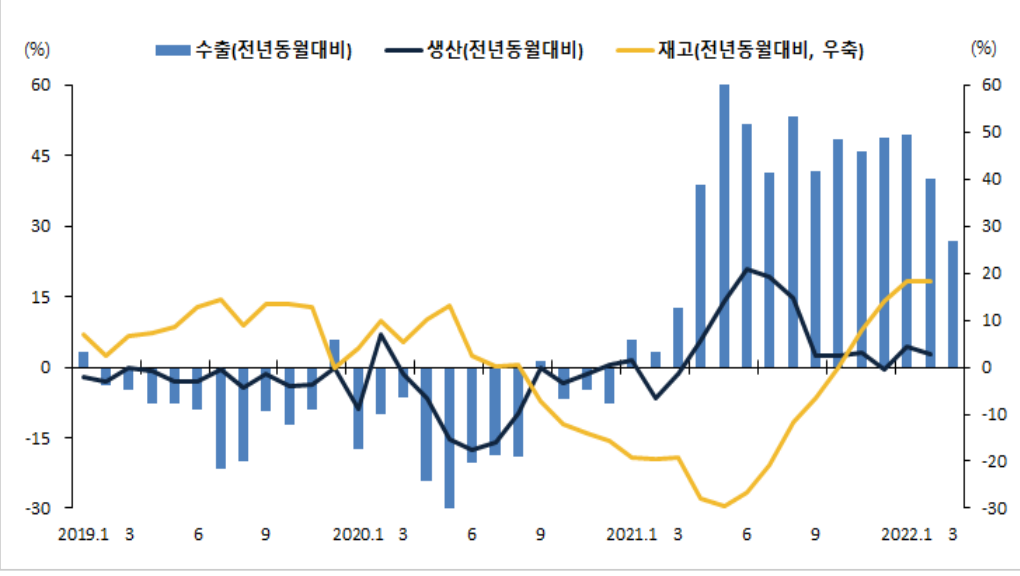
■ **전방산업의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철강 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로는 2.7% 증가하였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로는 1.7%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0.6 → ('22.1월)4.4 → (2월)2.7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1.6 → ('22.1월)4.1 → (2월)-1.7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14.1 → ('22.1월)18.2 → (2월)18.3

■ **세계 경제의 회복세로 인한 수요 증가와 더불어 국제 정세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출가격이 상승하며 3월 철강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26.8%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48.6 → ('22.1월)49.5 → (2월)39.9 → (3월)26.8

[그림 8] 철강 산업 생산·수출·재고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조선 산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3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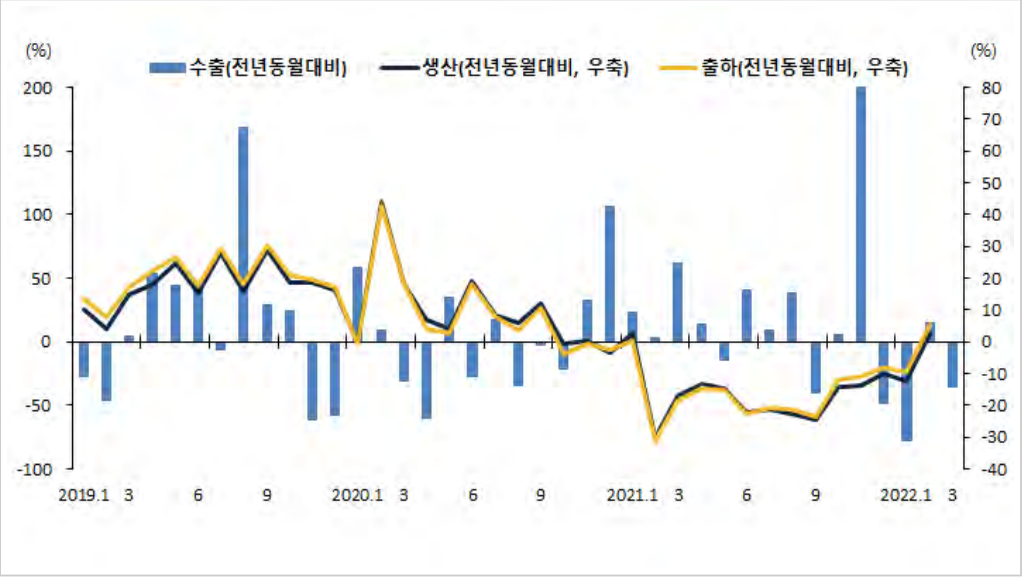
■ **2월 중 생산은 2021년 1~2월간 국내 수주가 전년동기대비 40.6% 늘어난 영향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2.5% 증가하였으며, 출하도 5.5% 증가**

- 2월 수주는 전년동월대비 45.8% 증가한 86만 CGT(Compansated Gross Tonage)를 기록하였으며, 글로벌 수주량(128만 CGT) 중 67.0%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9.4 → ('22.1월)-12.1 → (2월)2.5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2.5 → ('22.1월)-0.3 → (2월)-5.2
- 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7.8 → ('22.1월)-9.3 → (2월)5.5

■ **3월 중 수출(15.0억 달러)은 고부가가치 선종인 LNG운반선 수출이 6척('21년 3월)에서 2척으로 줄어든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35.9% 감소**

- 3월 수출실적: LNG운반선 2척, LPG운반선 1척, 탱커선 11척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49.0 → ('22.1월)-77.9 → (2월)15.8 → (3월)-35.9

[그림 9] 조선 산업 생산·수출·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석유 산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3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증가

■ **휘발유, 벙커C유, 경유, 항공유 등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3.0%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0.7% 소폭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7.7 → ('22.1월)5.7 → (2월)3.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0.6 → ('22.1월)-2.6 → (2월)0.7
- 재고(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13.2 → ('22.1월)0.5 → (2월)-7.0

[표 3] 생산 비중 상위 5개 석유제품별 생산량, 비중, 전년동월대비 및 전월대비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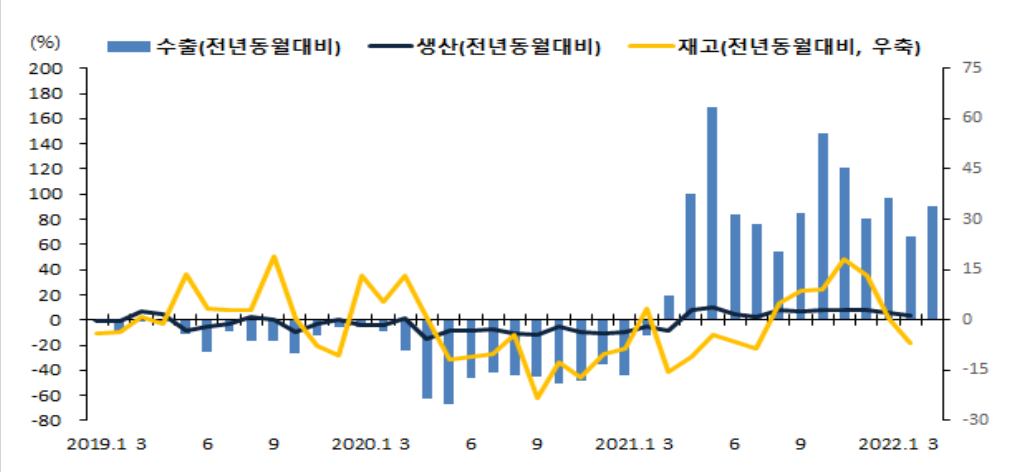
	경유	납사[1)]	휘발유	항공유	벙커C유
생산량(천Bbl)	27,602	22,522	13,735	8,149	7,264
비중(%)	28.8	23.5	14.3	8.5	7.6
전년동월대비(%)	8.5	-2.1	23.0	34.3	42.7
전월대비(%)	-8.9	-12.8	-9.1	0.4	-11.9

주: 1) 납사(또는 나프타, Naphtha): 원유를 증류할 때 30~220°C의 비등점에서 얻어지는 탄화수소의 혼합체로 석유화학제품의 주 원료
자료: Petronet(한국석유공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3월 수출은 지정학적 불안정성 심화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석유제품 수출단가역시 상승하였고, 대부분의 주요 시장에서 수출 증가세가 유지되면서, 전년동월대비 90.1% 큰 폭으로 증가하여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

- 석유제품 수출단가($/톤): ('21.3월)580.4 → ('22.3월)941.8(전년동월대비 62.3%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80.2 → ('22.1월)96.6 → (2월)66.8 → (3월)90.1

[그림 10] 석유 산업 생산·재고·수출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섬유 산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3월 「수출」도 전년동월대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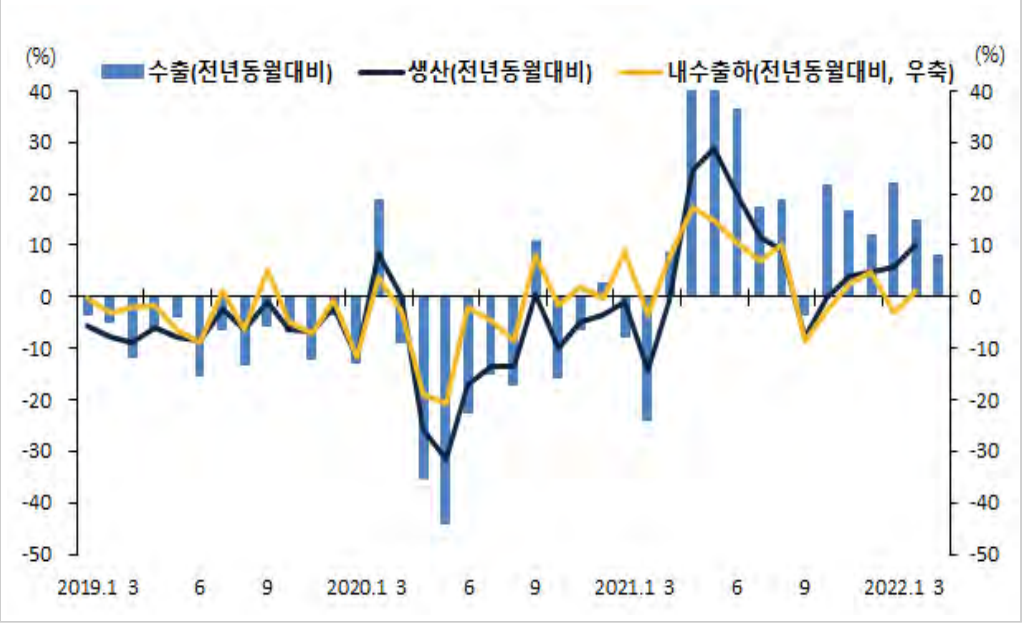
■ **2월 섬유 산업 생산은 수출(15.2%) 및 내수출하(1.1%) 증가와 재고(-6.5%) 감소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0.0% 증가하였으나, 전월대비로는 조업일수 부족 영향 등으로 1.7%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4.8 → ('22.1월)5.9 → (2월)10.0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2.7 → ('22.1월)4.1 → (2월)-1.7
- 내수출하(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4.9 → ('22.1월)-3.3 → (2월)1.1

■ **2022년 3월 섬유 수출은 견조한 직물·의류 등 수요를 바탕으로 아세안·미국·중동 등으로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8.3% 증가(6개월 연속 증가)**

- 수출(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12.1 → ('22.1월)22.1 → (2월)15.2 → (3월)8.3

[그림 11] 섬유 산업 생산·수출·내수출하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서비스업

서비스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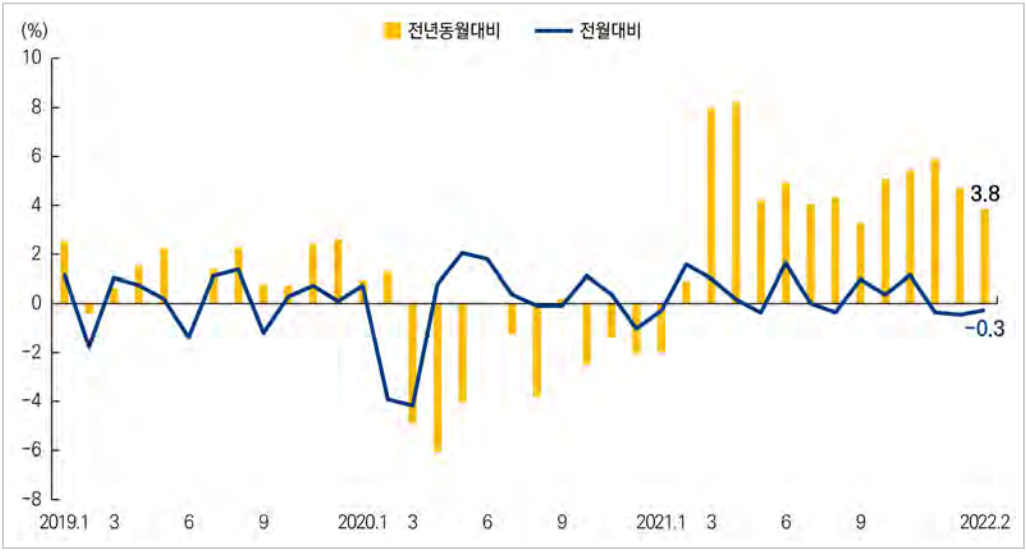
■ **2월 중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부동산 및 임대(-1.1%)를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늘어 3.8%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5.8 → ('22.1월)4.7 → (2월)3.8
- 도매 및 소매는 전년동월대비 도매업(3.6%), 소매업(0.5%),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3.8%) 등이 모두 늘어 2.5% 증가
- 금융 및 보험은 전년동월대비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23.9%)이 줄었으나, 금융업(9.3%)과 보험업(6.8%) 등이 늘어 1.1% 증가
- 운수는 전년동월대비 수상운송업(-1.5%)이 줄었으나, 육상운송업(0.7%), 항공운송업(38.9%),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18.4%) 등이 늘어 8.0% 증가
- 출판·영상·방송은 전년동월대비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3.2%)이 줄었으나, 출판업(4.8%), 방송업(8.4%), 우편 및 통신업(4.4%) 등이 늘어 7.5% 증가

■ **전월대비로는 도매 및 소매(0.5%) 등이 늘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숙박 및 음식점(-4.0%), 운수(-1.5%), 예술·스포츠·여가(-7.3%) 등이 줄어 0.3% 감소**

- 서비스업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0.4 → ('22.1월)-0.4 → (2월)-0.3

[그림 12]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4] 서비스업 생산 동향

(단위: 2015=100, 전년동월대비 %)

업종별	2020	2021			2022		
	12월	1월	2월	12월*	1월*	2월*	전월대비
서비스업(원지수)	116.4	104.7	101.6	123.2	109.6	105.5	-0.3
서비스업	-2.0	-2.0	0.9	5.8	4.7	3.8	
도매 및 소매	-1.2	-2.0	3.0	4.2	4.5	2.5	0.5
금융 및 보험	23.7	23.8	11.6	0.2	-4.8	1.1	0.0
숙박 및 음식점	-39.6	-36.6	-11.1	38.4	37.6	11.1	-4.0
운수	-13.2	-14.5	-3.9	12.2	13.4	8.0	-1.5
출판·영상·방송	0.5	23.8	0.7	8.0	7.2	7.5	0.2
교육	-3.3	-5.8	-0.5	1.7	3.7	1.3	-0.5
보건 및 사회복지	-0.9	-0.4	0.7	5.7	5.8	6.9	1.2
전문, 과학 및 기술	2.0	0.1	-1.4	5.6	2.8	2.7	-1.0
사업시설관리지원	-12.4	-9.2	-2.3	4.7	3.8	3.4	0.6
협회·수리·기타개인	-12.0	-11.5	-7.9	5.8	1.1	0.3	1.8
부동산 및 임대	3.6	0.8	-7.4	-3.9	-1.2	-1.1	-3.0
예술·스포츠·여가	-40.2	-47.8	-20.9	33.7	56.0	20.3	-7.3
하수, 폐기물 처리	2.2	5.8	-9.8	0.2	-3.2	0.3	-1.9

주: *는 잠정치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도매 및 소매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2월 중 도매 및 소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3.8%), 도매업(3.6%), 소매업(0.5%) 등 모든 세부 부문이 증가함에 따라 2.5%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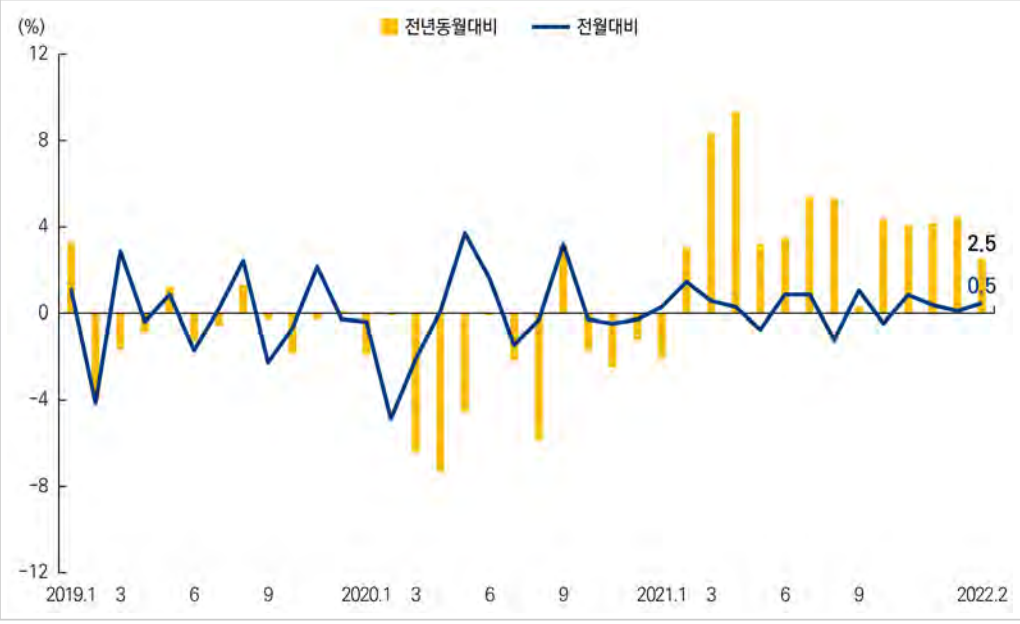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4.2 → ('22.1월)4.5 → (2월)2.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 생산은 1월에 자동차 생산공장 내 신차설비 공사가 완료되면서 생산량이 회복되어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하며 2021년 8월(3.8%) 이후 7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 도매업 부문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건축자재 도매업(-9.3%)이 감소하였으나, 생활용품 도매업[3](3.1%)과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7.3%) 등이 늘어 3.6% 증가
- 소매업 부문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대형 종합소매업[4](-11.1%)과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5](-10.9%) 등이 감소하였으나, 무점포 소매업(8.3%)과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2.6%) 등이 늘어 0.5% 증가

3) 의복 및 신발 도매업, 의약품, 의료용품 및 화장품 도매업
4) 백화점, 대형마트 등
5) 슈퍼마켓, 체인화 편의점, 기타 종합 소매점 등

■ **전월대비로는 소매업 부문이 2.1% 감소하였으나,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과 도매업 부문이 각각 12.0%, 0.8% 증가함에 따라 0.5% 증가**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0.4 → ('22.1월)0.1 → (2월)0.5
-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부문 생산은 전월대비 자동차 판매업 부문이 14.3% 증가하고, 자동차 부품 및 이륜차 판매업 부문도 8.4% 증가함에 따라 12.0% 증가
- 도매업 부문 생산은 전월대비 건축자재 도매업(-2.3%)과 기타 전문 도매업 (-0.8%) 부문 등이 감소하였으나,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부문이 3.0% 증가함에 따라 소폭(0.8%) 증가
- 소매업 부문 생산은 전월대비 정보통신장비 소매업(13.7%) 및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6](12.0%) 부문이 증가하였으나, 종합소매업(-8.2%), 음식료품 소매업(-19.2%) 등이 감소함에 따라 2.1% 감소

[그림 13] 도매 및 소매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6) 의약품, 의료용 기구,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화초 및 기타상품 소매업 등

금융 및 보험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보합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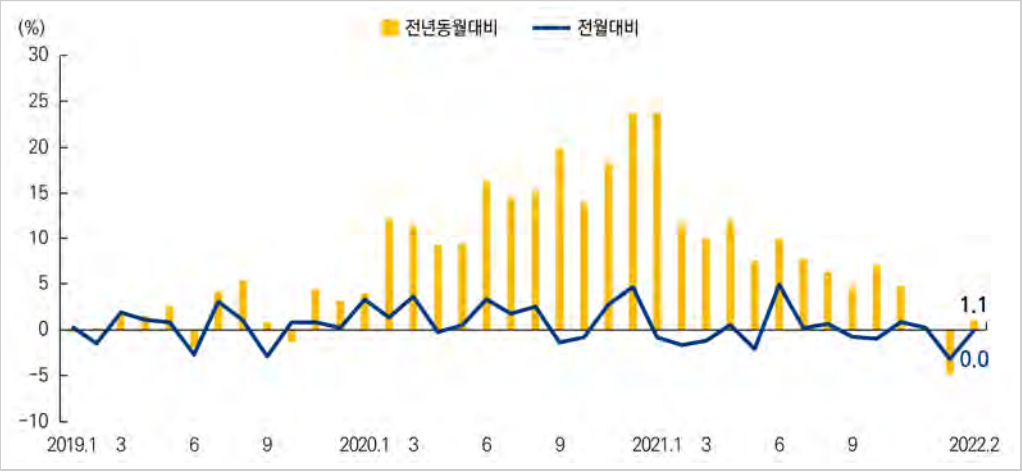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7] 부문의 생산이 23.9% 크게 감소한 반면, 금융업, 보험업 부문의 생산이 각각 9.3%, 6.8% 증가하여, 2월 중 금융 및 보험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1% 증가**

- 세부 부문 중 공제업, 신용조합 및 저축기관, 금융리스업 부문의 생산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53.8%, 17.7%, 15.5% 증가하였으나, 세분류로 증권 및 선물 중개업을 포함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이 28.1% 크게 감소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0.2 → ('22.1월)-4.8 → (2월)1.1
- KRX 상장주식 거래량(주) 증감률(전년동월대비, %): ('21.12월)-47.1 → ('22.1월)-48.1 → (2월)-64.6

■ **전월대비로는 보험업, 금융업 부문의 생산이 각각 3.5%, 1.5% 증가한 반면,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이 8.0% 감소하여 보합세 시현**

- 세부 부문 중 공제업 부문의 생산이 17.8% 증가한 반면, 세분류로 증권 및 선물 중개업을 포함하는 금융 지원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이 8.6% 감소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0.3 → ('22.1월)-3.2 → (2월)0.0
- KRX 상장주식 거래량(주) 증감률(전월대비, %): ('21.12월)-11.1 → ('22.1월)-1.8 → (2월)-17.2

[그림 14] 금융 및 보험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7) 금융업, 보험업 및 연금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되는 각종 관련 서비스활동을 포함하며, 소분류에 금융 지원 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관련 서비스업, 세분류에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등을 포함.

숙박 및 음식점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전월대비로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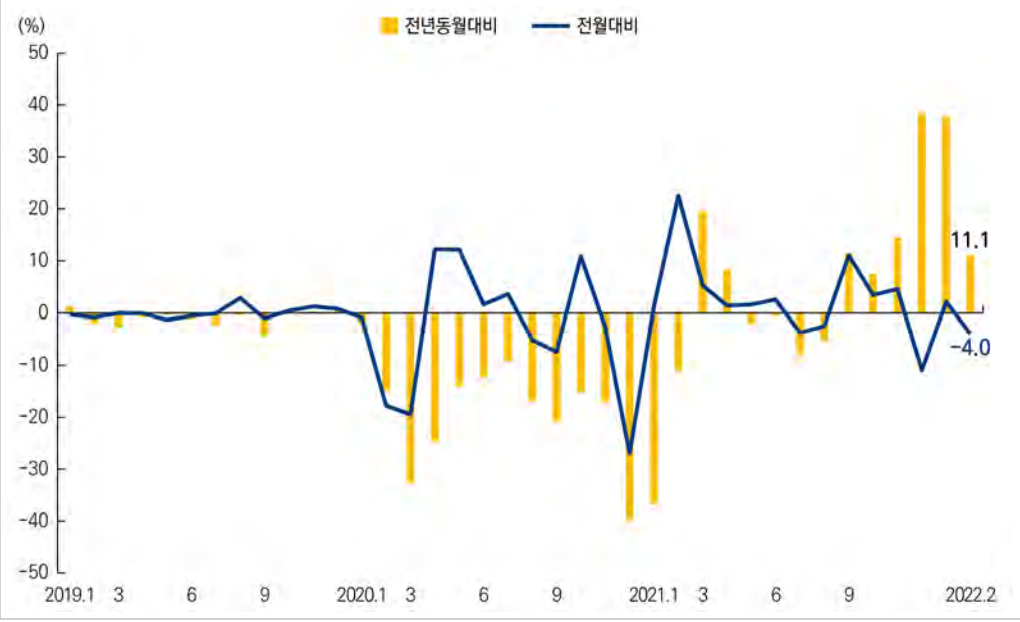
■ **2월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1.1%로 증가폭이 감소하였는데, 숙박업 부문에서는 23.4%,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에서는 9.4% 증가**

- 세부 부문별로 살펴보면,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외국식 음식점업, 주점업, 비알콜 음료점업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각각 25.0%, 38.8%, 19.8%, 16.9%, 9.5%로 증가세는 유지됐지만 증가폭은 감소한 모습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38.4 → ('22.1월)37.6 → (2월)11.1

■ **전월대비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의 영향으로 4.0% 감소하였는데, 숙박업 부문에서는 2.9%, 음식점 및 주점업 부문에서는 4.1% 감소**

- 세부 부문 중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부문과 음식점업 부문에서 전월대비 각각 4.4%, 4.2% 감소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10.9 → ('22.1월)2.2 → (2월)-4.0

[그림 15]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운수 및 창고업: 2월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였고, 전월대비로는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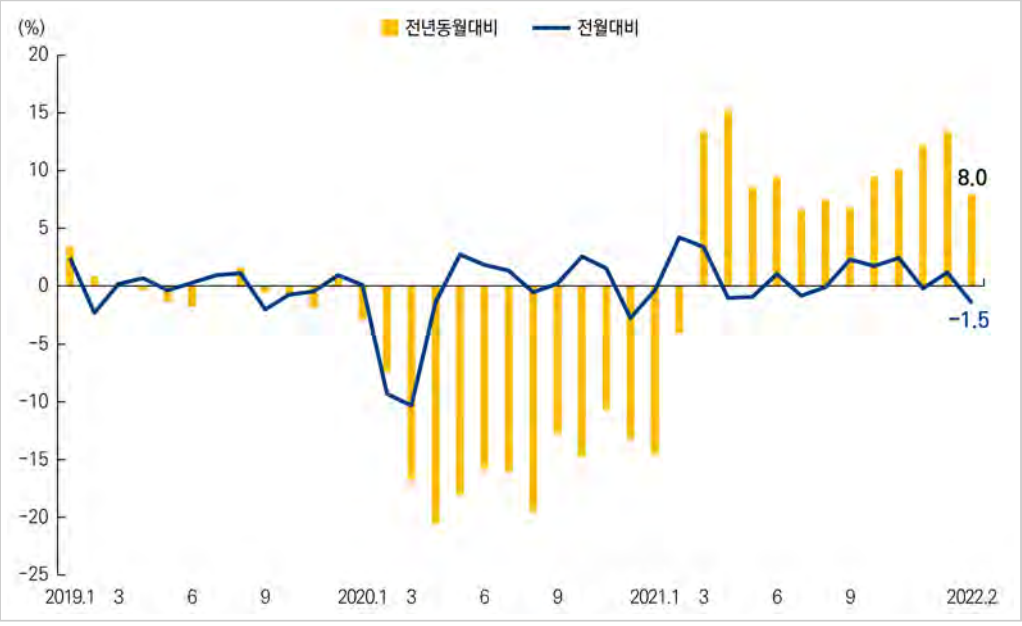
■ **2월 중 운수 및 창고업은 비중이 제일 작은 수상운송업(-1.5%)은 감소하였으나, 설 연휴 선물 및 여행 특수로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18.4%), 항공운송업(28.9%), 육상운송업(0.7%)에서 생산이 늘어 8.0% 증가**

- 생산(전년동월대비) 증감률(%): ('21.12월)12.2 → ('22.1월)13.4 → (2월)8.0

■ **전월대비로는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2.5%)만 생산이 증가하고, 육상운송업(-2.2%), 항공운송업(-10.1%), 수상운송업(-5.9%) 등에서 모두 생산이 감소하여 1.5% 감소**

- 생산(전월대비) 증감률(%): ('21.12월)-0.2 → ('22.1월)1.2 → (2월)-1.5

[그림 16] 운수 및 창고업 생산 증감률 추이



자료: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영화산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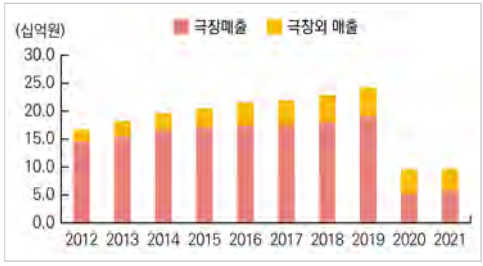
■ 영화산업은 2020년 이후 「관람객수」와 「매출」이 감소

- 영화 관람객수는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95만명, 605만명으로, 2019년 대비 26.3%, 26.7%에 그침
  - 2022년 1/4분기 관객수가 11.8만명으로, 전년동기(8.2만명)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9년 1/4분기의 21.4%에 불과
- 이에 따라 영화산업 매출액은 2020년과 2021년 1.1조원과 1.0조원으로 2019년(2.5조원)의 약 44.0% 수준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극장 매출액은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5,104억원, 5,845억원으로, 2019년 대비 약 26.7%, 30.5% 수준

[영화극장 매출 및 관객수 추이]

자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영화산업 매출액 추이]



자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 영화 관람객 및 매출액의 하락은 2020년에 「극장수」와 「종사자수」를 감소시켰으나, 「극장수」는 2021년에 반등

- 영화극장수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파로 휴관이 늘면서 2020년 474개로 2019년 대비 7.6%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신규 개관 및 휴관했던 극장의 재개관으로 2019년 대비 5.7% 증가(542개)
- 영화산업 종사자수는 2020년과 2021년 2.0만명으로, 2019년 대비 33.6% 수준

[영화극장 및 스크린 추이]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산업 종사자수 추이]

주: 상반기 기준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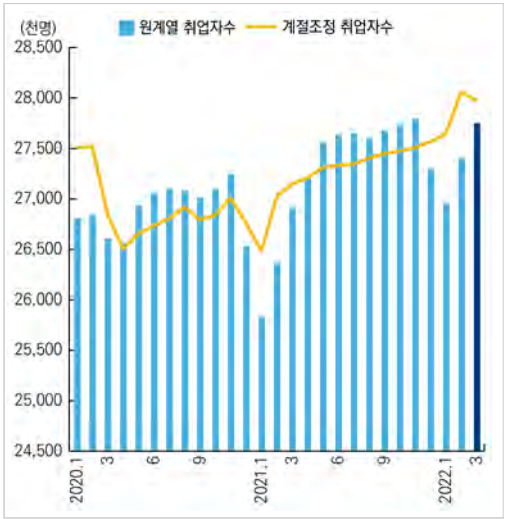
2. 고용

3월 중 「고용」은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전월보다 둔화되었으나 견실한 회복 흐름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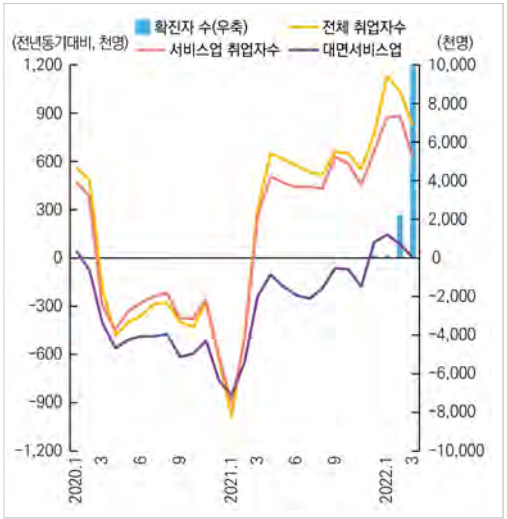
■ **3월 중 전체 취업자 수는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확산되는 가운데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가폭이 대면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둔화되며 전월보다 증가폭이 둔화**

- 3월 중 전체 취업자 수(2,775.4만 명)는 전년대비 83.1만 명(3.1%) 늘며 전월(103.7만 명, 3.9%)보다 증가폭 둔화되었으나 양호한 증가세 유지
- 계절조정 전체 취업자수는 전월 큰 폭의 증가(41.7만 명)에서 -9.4만 명으로 감소 전환
- 도소매업(2월 -4.7만→3월 -3.2만), 숙박·음식업(2월 5.5만→3월 -2.0만), 개인서비스업(2월 -3.2만→2월 -3.0만) 등 대면서비스업종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 급증(2월 228.9만→3월 996.2만)의 영향으로 감소하였고, 제조업(10.4만)과 건설업(6.4만)에서는 전월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 유지

[그림 17] 월별 취업자수 추이



[그림 18] 코로나19 확진자수 및 서비스업 취업자수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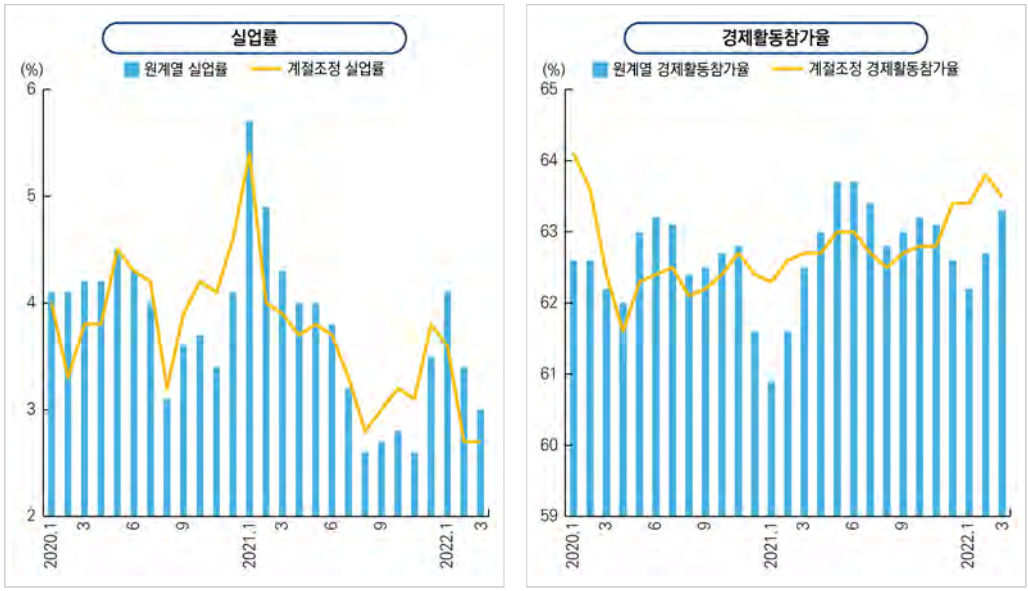
주: 1) 대면서비스업종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운수창고업 등을 포함
2) 전체 취업자수는 계절조정치 기준

자료: 통계청

■ **실업률(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은 비경제활동인구가 늘며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실업자 수가 줄며 계절조정 실업률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실업률(계절조정, %): ('22.1월)3.6 → (2월)2.7 → (3월)2.7
- 경제활동참가율(계절조정, %): ('22.1월)63.4 → (2월)63.8 → (3월)63.5
- 비경제활동인구(계절조정 전월대비, 만명): ('22.1월)-3.4 → (2월)-14.6 → (3월)11.1

[그림 19] 실업률 및 경제활동참가율



자료: 통계청

■ **고용률(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전년동월대비 증가폭이 둔화**

- 3월 중 원계열 고용률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1.6%p 상승하며 전월(2.0%p)보다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계절조정 고용률은 61.8%로 전월대비 0.3%p 하락
- 15~64세 고용률(OECD 비교기준)은 67.8%로 전년동월대비 2.1%p 상승하였고, 성별로는 남자는 76.4%(전년대비 1.8%p 상승), 여자는 59.1%(전년대비 2.6%p 상승)

3월 「산업별 취업자 수」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에서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건설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6.4만 명)는 14개월 연속 증가

- 건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0월)5.2 → (11월)1.6 → (12월)4.0 → ('22.1월)10.0 → (2월)6.5 → (3월)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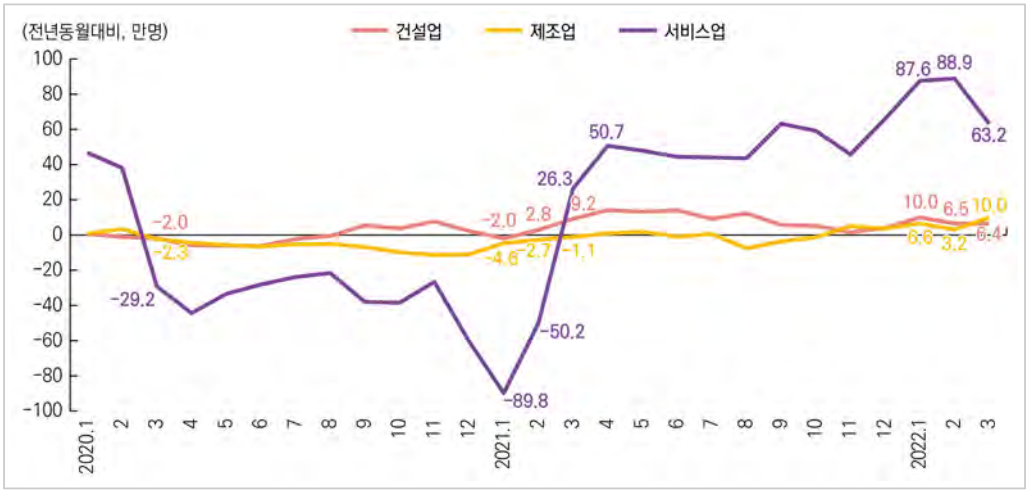
■ 제조업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10.0만 명)는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8년 1월 이후 최대 증가세를 기록

- 제조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0월)-1.3 → (11월)5.1 → (12월)3.7 → ('22.1월)6.6 → (2월)3.2 → (3월)10.0

■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63.2만 명)는 큰 폭의 증가세를 지속

-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0월)59.2 → (11월)45.8 → (12월)66.0 → ('22.1월)87.6 → (2월)88.9 → (3월)63.2
- 전년동월에 서비스업의 고용상황이 개선('21.2월 -50.2만 명 → 3월 +26.3만 명)되어 기저효과가 소멸되었음에도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
- 보건·복지업(+25.1만 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비대면·디지털 전환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기술업 +7.2만 명, 운수·창고업 +8.1만 명, 정보통신업 +8.1만 명) 등에서도 취업자 수가 증가
- 다만, 도소매업(-3.2만 명)과 숙박·음식점업(-2.0만 명), 개인서비스업(-3.0만 명) 등 일부 대면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감소

[그림 20]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연령별 취업자 수」는 전 연령대에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청년층(15~29세)의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17.7만 명)는 2021년 3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지만,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2개월 연속 축소**

- 청년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0월)18.0 → (11월)16.8 → (12월)26.6 → ('22.1월)32.1 → (2월)26.3 → (3월)1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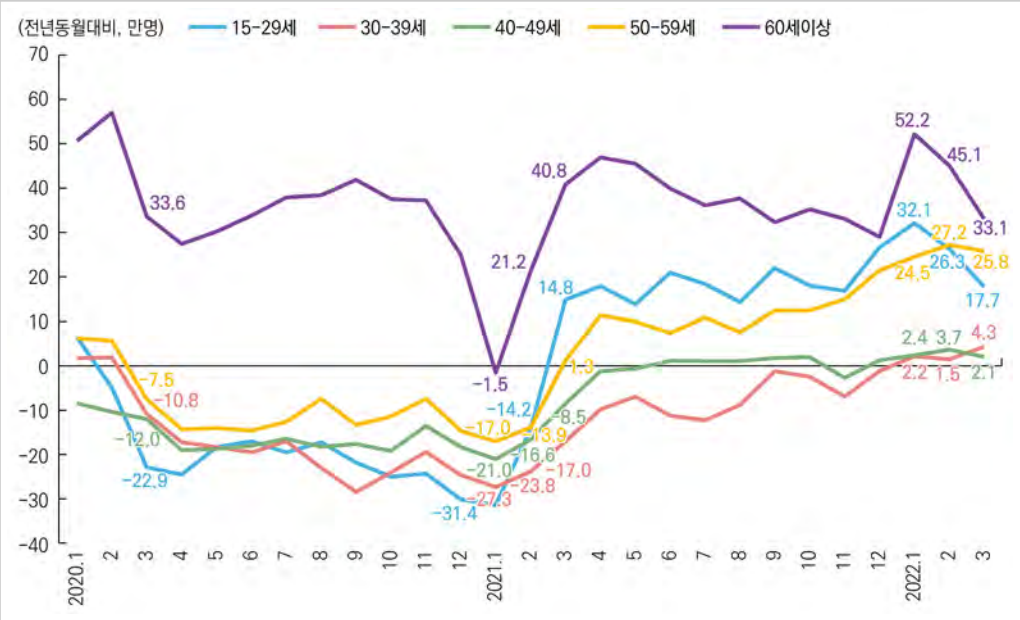
■ **핵심 노동연령대인 30~50대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32.2만 명)는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30~40대의 회복은 더딘 양상**

- 30~50대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0월)12.0 → (11월)5.3 → (12월)21.6 → ('22.1월)29.1 → (2월)32.4 → (3월)32.2
- 5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5.8만 명 증가한 반면, 30대(+4.3만 명)와 40대(+2.1만 명)는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에 그침

■ **60세 이상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33.1만 명)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

- 60세 이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0월)35.2 → (11월)33.1 → (12월)29.0 → ('22.1월)52.2 → (2월)45.1 → (3월)33.1

[그림 21] 연령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월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에서 모두 증가

■ **임금근로자(전년동월대비 +80.5만 명) 중 상용직에서 큰 폭의 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시직은 증가하였고, 일용직은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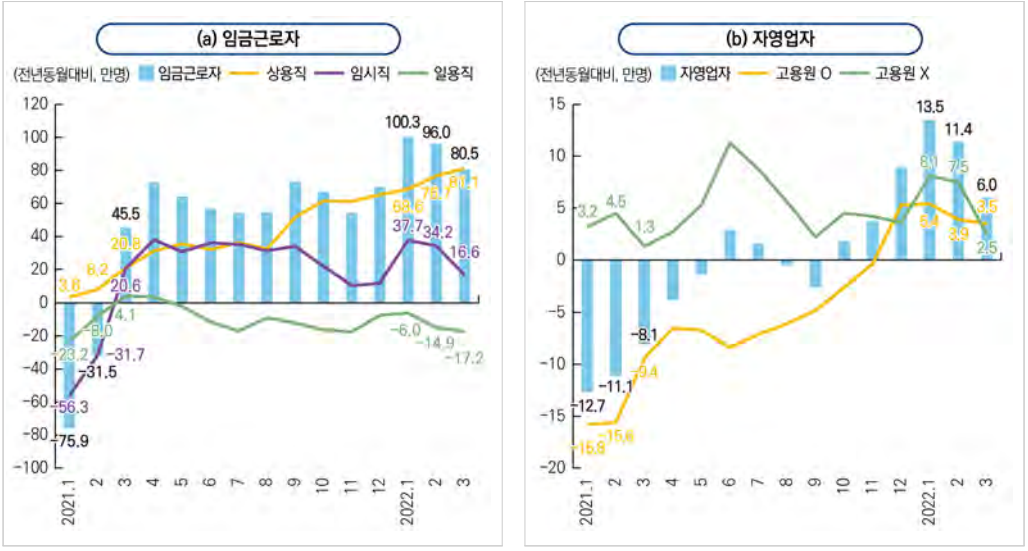
- 상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0월)61.5 → (11월)61.1 → (12월)65.2 → ('22.1월)68.6 → (2월)76.7 → (3월)81.1
- 임시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0월)21.9 → (11월)10.6 → (12월)11.9 → ('22.1월)37.7 → (2월)34.2 → (3월)16.6
- 일용직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0월)-16.2 → (11월)-17.5 → (12월)-7.4 → ('22.1월)-6.0 → (2월)-14.9 → (3월)-17.2

■ **자영업자(전년동월대비 +6.0만 명)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서 모두 증가**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0월)-2.6 → (11월)-0.4 → (12월)5.3 → ('22.1월)5.4 → (2월)3.9 → (3월)3.5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0월)4.5 → (11월)4.2 → (12월)3.6 → ('22.1월)8.1 → (2월)7.5 → (3월)2.5

[그림 22]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추이

(전년동월대비, 만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3. 인구

2022년 3월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저출산·고령화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사망자 수가 증가하여 주민등록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 2022년 3월 주민등록인구는 5,161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만명(－0.18%)감소**

■ **각 연도 3월 말 기준 전년동월대비 인구증가율은 2015년 0.38%, 2018년 0.13%, 2021년 －0.26%, 2022년 －0.18%로 하락**

[그림 23] 주민등록인구 및 인구증가율 추이(2012.3~2022.03)

주: 각 연도 3월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임
자료: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2년 1월 「출생아 수」는 전년동월대비 감소, 「사망자 수」는 증가, 「인구 자연증가」는 2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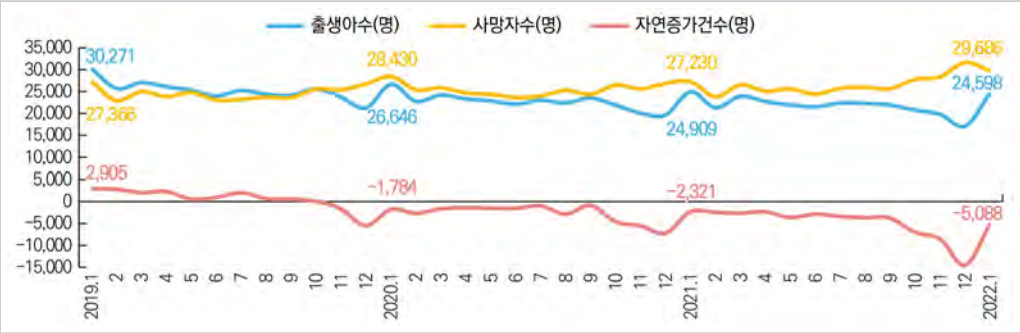
■ **2022년 1월 출생아 수는 24,598명, 전년동월대비 311명(－0.1%) 감소**

■ **2022년 1월 사망자 수는 29,686명, 전년동월대비 2,457명 (9.0%) 증가**

- 월별 사망자 수로는 2018년 1월(31,550명) 이후 두 번째로 많았으며, 고령화와 코로나19 등 건강 위험 요인으로 사망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됨

■ **2022년 1월 인구 자연증가(출생아 수 – 사망자 수)는 –5,088명으로 2019년 11월 이후 27개월 연속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가 많은 "인구 자연증가 마이너스"가 지속됨**

[그림 24] 월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및 자연증가건수 추이(2019.1~2022.1)



자료: 통계청(2022),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022년 1월의 「혼인건수」와 「조혼인률」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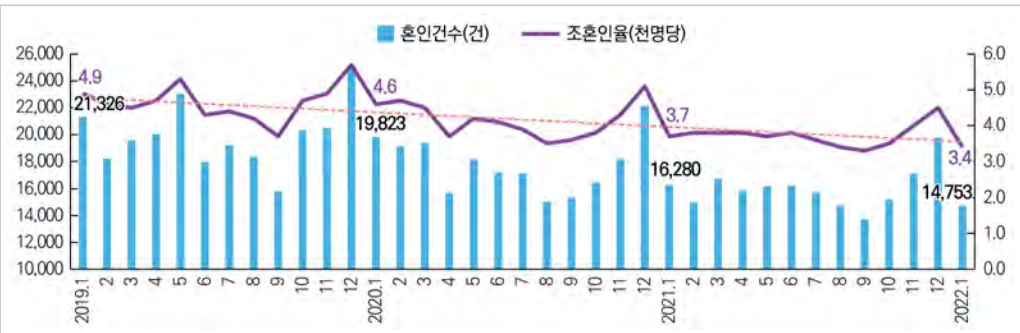
■ **2022년 1월 혼인건수는 전년동월대비 1,527건(–9.4%) 감소한 14,753건으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소수준을 기록**

- 주요 혼인 연령층인 30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계절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됨

■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는 조혼인률은 각 연도 1월 기준으로 2019년 4.9건, 2020년 4.6건, 2021년 3.7건, 2022년 3.4건으로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

- 2021~2022년 동안 조혼인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혼인을 연기하려는 유인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됨

[그림 25] 월별 혼인건수 및 조혼인률 추이(2019.01~2022.1)



주: 점선은 조혼인률의 추세선을 의미

자료: 통계청(2022), 「국가통계포털(kosis.kr)」을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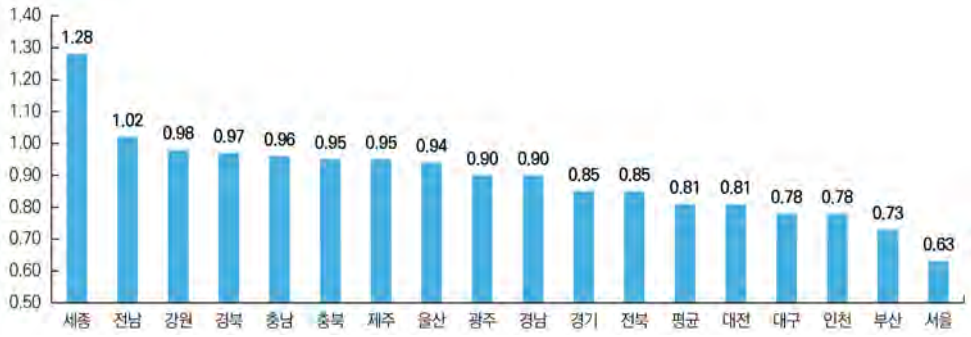
[2021년 시도별 인구동향 비율 현황]

■ **2021년 합계출산율은 세종을 제외한 비수도권 도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세종의 합계출산율이 1.28명으로 가장 높았고, 서울특별시가 0.63명으로 가장 낮았음
-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충북 등 비수도권 도 지역의 합계출산율이 전국평균인 0.81명보다 높았고, 대전, 대구, 인천, 부산, 서울 등이 평균보다 낮았음

[2021년 시도별 합계출산율 현황]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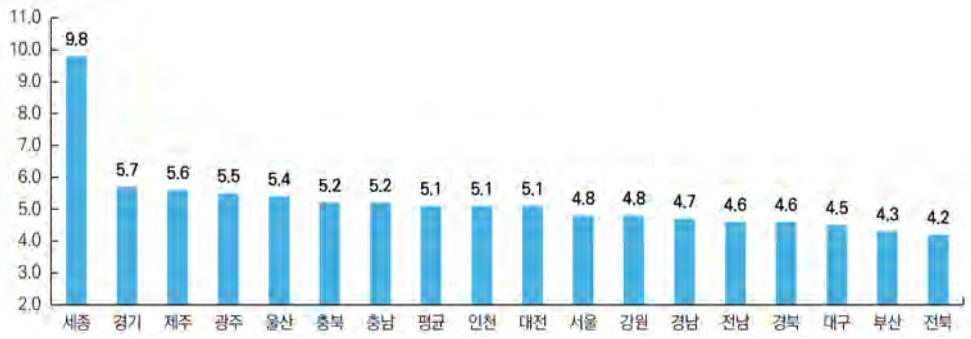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인 조출산율은 세종, 경기, 제주, 광주 등이 평균보다 높았지만, 전남, 강원, 경북은 평균보다 낮았음**

- 전남, 강원, 경북은 합계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에도 조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청년층 혹은 주출산 연령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2021년 시도별 조출산율 현황]

(단위: 인구 1,000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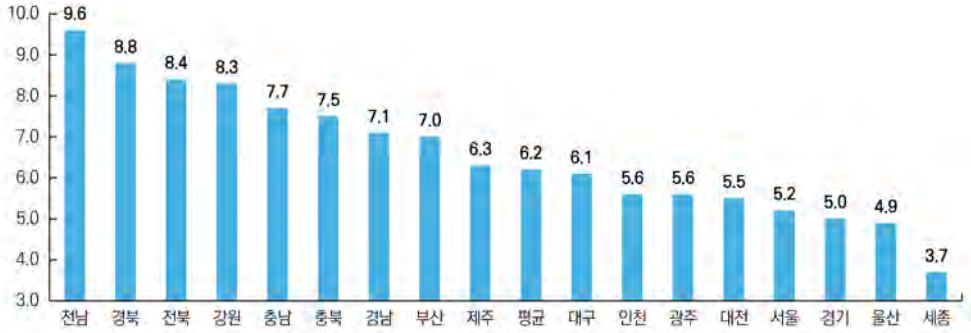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비수도권 도지역이 평균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지역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음**

-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등의 조사망률이 평균(6.2명) 보다 높게 나타났고, 서울, 경기, 인천, 세종 등이 평균 보다 낮게 나타났음

[2021년 시도별 조사망률 현황]

(단위: 인구 1,000명당 명)



자료: 통계청(2022)

■ **지역별 사망률은 해당 지역의 고령인구비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고령인구비율이 높을수록 조사망률도 높다고 볼 수 있음**

- 2021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이 높은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 충남 등은 조사망률 역시 높았음

[2021년 시도별 65세 이상 고령인구비중]

(단위: %)

자료: 통계청(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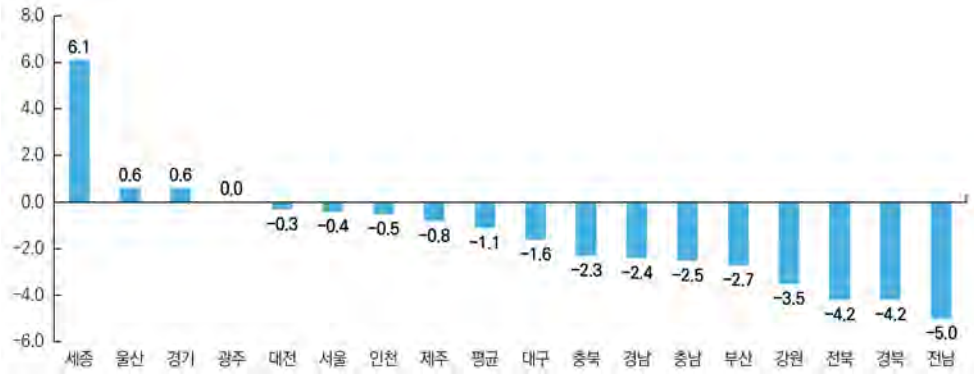
■ **인구 1,000명당 자연증가수를 나타내는 자연증가율은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부산 등이 평균에 비해 작았고, 세종, 울산, 경기, 광주 등이 평균보다 컸음**

- 전남, 경북, 전북, 강원 등은 합계출산율은 높지만, 고령화로 인해서 조사망률이 매우 높아 출생아 수에 비해 사망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기에 자연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음

- 세종, 울산, 경기 등은 인구구조가 상대적으로 젊어서 조사망률이 낮았고 이에 따라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았으며, 자연증가율이 플러스(+)였음
- 대구와 부산 등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낮고, 조사망률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자연증가율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2021년 시도별 자연증가율 현황]

(단위: 인구 1,000명당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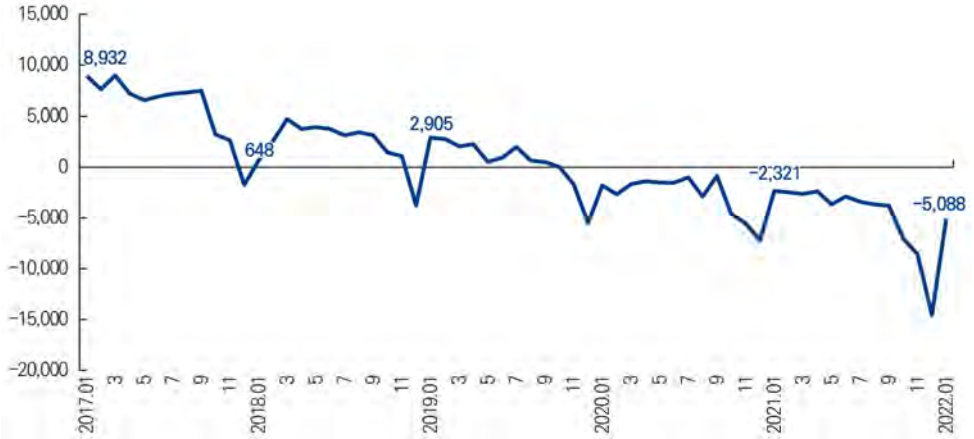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22)

■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자연증가는 2019년 11월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이후 27개월 째 인구자연감소가 지속되고 있음**

- 각 연도 1월 기준 인구자연증가(명): 2017년 8,932명, 2018년 648명, 2019년 2,905명, 2020년 -1,784명, 2021년 -2,321명, 2022년 -5,088명

[월별 인구자연증가 추이]

(단위: 명)



■ 2021년 연간으로는 경기도,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14개 시도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가 많은 자연증가가 마이너스(-)였음

[인구자연증가 현황]

(단위: 명, 인구 1천 명당 명)

	2019년	2020년	2021년p	2022년p	
				1월	자연증가율
전 국	7,566	-32,611	-57,280	-5,088	-1.2
서 울	9,844	1,923	-3,372	-363	-0.5
부 산	-5,211	-7,892	-9,076	-757	-2.7
대 구	-519	-3,267	-3,893	-351	-1.7
인 천	3,391	351	-1,554	-125	-0.5
광 주	729	-467	-27	-16	-0.1
대 전	908	-91	-498	-44	-0.4
울 산	2,271	1,315	637	22	0.2
세 종	2,598	2,151	2,219	188	5.9
경 기	22,630	14,943	8,697	1,057	0.9
강 원	-3,623	-4,347	-5,393	-479	-3.7
충 북	-2,030	-2,987	-3,737	-317	-2.3
충 남	-2,368	-4,072	-5,337	-515	-2.9
전 북	-5,554	-6,526	-7,585	-666	-4.4
전 남	-5,955	-7,698	-9,128	-827	-5.3
경 북	-7,231	-9,926	-10,893	-1,030	-4.6
경 남	-2,855	-6,058	-7,834	-831	-3.0
제 주	541	37	-504	-34	-0.6

자료: 통계청(2022)

Ⅲ

금융·자산

3월 중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 지속

■ **국고채금리는 미 FOMC 회의 이후 미국 국채금리 상승폭 확대 등으로 상승**

- 국고채금리(3년 만기, %): ('22.1월)2.06 → (2월)2.29 → (3월)2.37

■ **원/달러 환율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상승**

- 원/달러 환율(원): ('22.1월)1,195 → (2월)1,198 → (3월)1,221

■ **2022년 3월 국내 KOSPI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에도 불구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등으로 전월말(2,699) 대비 2.2% 상승한 2,758를 기록**

3월 중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전월대비 높은 상승률 지속

■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원유 가격이 전월대비 20.2% 상승하였고(112.4달러/배럴), 석탄, 천연가스 가격도 각각 34.2%, 6.1% 상승**

- 원유 가격(달러/배럴):(1월)83.9 → (2월)93.5 → (3월)112.4
- 석탄 가격(달러/톤):(1월)196.9 → (2월)231.4 → (3월)310.5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1월)14.7 → (2월)17.0 → (3월)18.0

■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도 각각 전월대비 7.2%, 11.6%, 7.7%, 5.3% 상승**

- 농산물 지수:(1월)118.5 → (2월)123.9 → (3월)132.8
- 식품 지수:(1월)133.6 → (2월)141.1 → (3월)157.5
- 금속·광물 지수:(1월)125.2 → (2월)131.2 → (3월)141.3
- 귀금속 지수:(1월)139.1 → (2월)142.2 → (3월)149.6

3월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되었으며,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전월대비, %): ('22.1월) 0.10 → (2월) 0.03 → (3월) 0.02**

■ **주택 전월세가격지수 변동률(전월대비, %): ('22.1월) 0.10 → (2월) 0.04 → (3월) 0.04**

1. 금융

가. 금리

2022년 3월 「국고채금리」는 전월대비 상승

■ **국고채금리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심리 등에도 불구하고 미 FOMC 회의 이후 미 국채 금리 상승폭 확대로 전월대비 상승**

- 3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2.1월)2.06 → (2월)2.29 → (3월)2.37
- 10년 만기 국고채금리(월평균, %): ('22.1월)2.49 → (2월)2.69 → (3월)2.78

[그림 1] 국고채금리(3년 만기) 추이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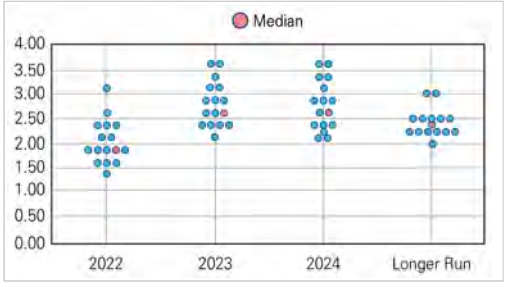
[그림 2] 국고채 및 미국 금리 추이

자료: 한국은행, Bloomberg

■ **3월 15~16일 미 FOMC에서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되고 점도표가 상향 조정**

- 2년 만기 미국채금리(월평균, %): ('22.1월)0.971 → (2월)1.44 → (3월)1.90
- 10년 만기 미국채금리(월평균, %): ('22.1월)1.76 → (2월)1.93 → (3월)2.12

[그림 3] FOMC 점도표



주: 2022년 3월 16일 회의
자료: FR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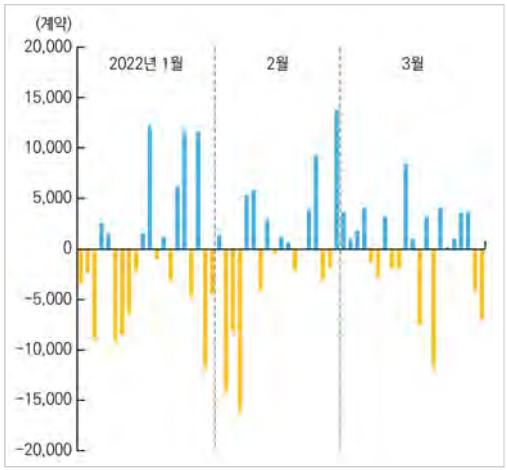
[그림 4] 미 장단기 금리와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외국인 채권투자는 미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면서 순매수 전환**

- 외국인 국고채선물 순매수(계약): ('22.1월)-18,015 → (2월)-5,508 → (3월)377

[그림 5] 외국인의 국고채선물 순매수 추이



자료: 인포맥스

[그림 6] 단기금리와 스프레드 추이

자료: 한국은행

■ **단기금리는 한국은행의 세차례 기준금리 인상, 추가 인상 기대감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달과 같은 수준 유지**

- 통안증권금리(91일물, 월평균,%): ('22.1월)1.18 → (2월)1.22 → (3월)1.22
- CP금리(91일물, 월평균,%): ('22.1월)1.60 → (2월)1.64 → (3월)1.64

2022년 3월 「회사채 금리」와 2022년 2월 「기업대출 금리」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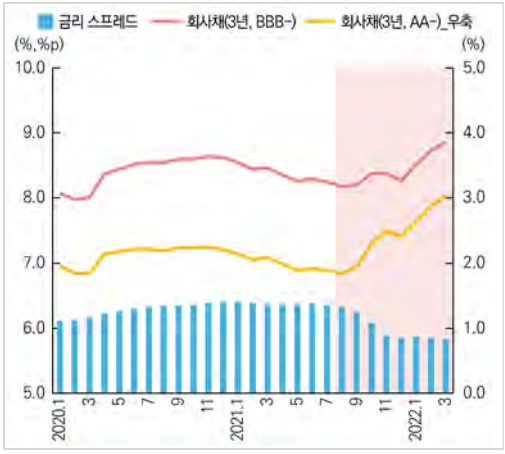
■ **2022년 3월 국내 회사채 금리는 물가 불안의 확대에 따른 한국은행 및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기조 강화 우려 등으로 상승**

- 3월 회사채 3년물(AA-) 금리는 전월 대비 16bp 상승한 3.03%, 회사채 3년물(BBB-) 금리는 전월 대비 13bp 상승한 8.86%를 기록
- 3월 회사채(3년,AA-등급)와 회사채(3년, BBB-등급)간 신용스프레드는 전월대비 2bp 하락한 583bp를 기록

■ **2022년 2월 기업대출 금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출 금리 모두 상승하였으나 대기업대출 금리가 중소기업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며 대출 금리차는 축소**

- 2월 기준 대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24bp 상승한 3.27%, 중소기업대출 금리는 전월대비 7bp 상승한 3.59%를 기록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대출 금리차가 전월 49bp에서 32bp로 축소
- 한편 2022년 2월 가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021년 6월 이후 9개월 연속 상승하며 전월대비 3bp 오른 3.88%를 기록

[그림 7] 회사채 금리 추이



주: 회사채 금리는 월평균 금리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그림 8] 기업 및 가계 대출금리 추이

주1) 예금은행 대출 기준
주2) 신규취급액 기준
자료: 한국은행 통계시스템

나. 환율

3월 「원/달러 환율」은 전월대비 상승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긴축 가속화 우려와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등으로 금융시장내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면서 전월대비 상승한 1,221원 기록**

- 원/달러 환율(월평균): ('22.1월)1,195 → (2월)1,198 → (3월)1,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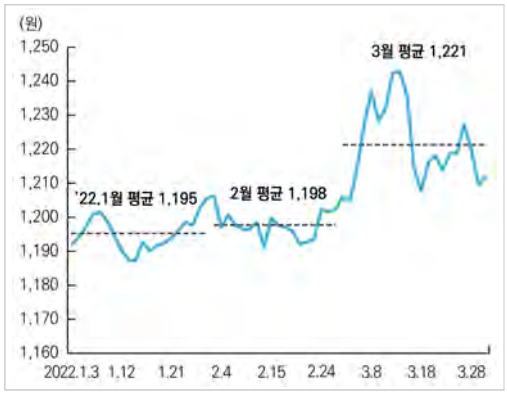
■ **대외적으로 통화정책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면서 위험회피성향 등으로 달러화 강세**

- 달러화지수(월평균): ('22.1월)95.9 → (2월)96.0 → (3월)98.5

■ **2월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되면서 외국인의 주식매도가 증가하여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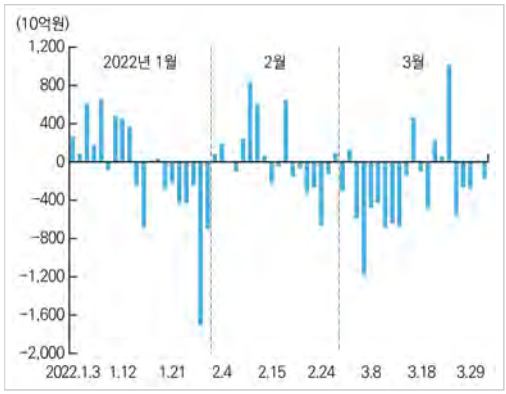
-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10억원) : ('22.1월)-1,861 → (2월)806 → (3월)-5,091

[그림 9] 원/달러 환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10] 외국인 국내주식 순투자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다. 주가

2022년 3월 「국내 주가」는 상승, 「글로벌 주가」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차별화

■ **2022년 3월 국내 주가는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 개인투자자의 순매수 등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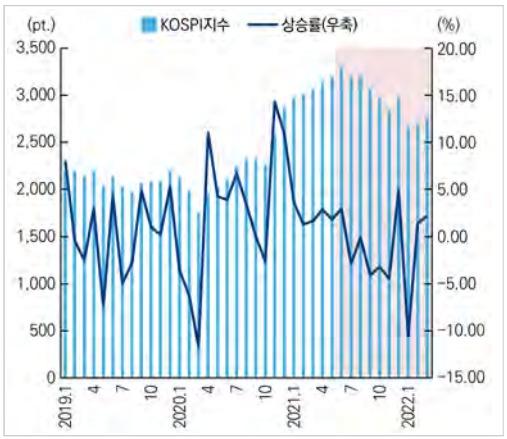
- 3월 KOSPI지수는 전월말(2,699) 대비 2.2% 상승한 2,758를 기록
- 개인 투자자는 2022년 3월 중 5.9조원의 국내 주식을 순매수

■ **한편 주식시장의 대기수요를 나타내는 고객예탁금[8]은 2020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 감소세**

- 고객예탁금은 2020년 1월말 28.7조원에서 2022년 1월말 70.3조원으로 2.4배 증가하였으나 최근 감소세를 보이며 2022년 3월말 63.3조원을 기록
- 고객예탁금이 64조원을 하회한 것은 2021년 4월 이후 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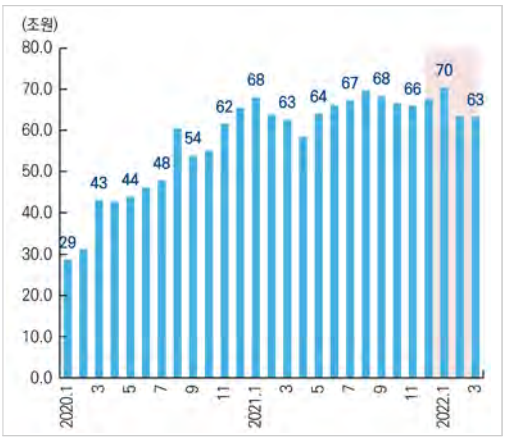
8) 고객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놓았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자금으로, 고객예탁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증시로 시중 자금이 유입됨을 의미

[그림 11] KOSPI 주가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그림 12] 고객예탁금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 **3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물가 불안,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이 상충되며 선진국 주가는 상승한 반면 신흥국 주가는 하락**

- 3월말 기준 선진국 주가는 전월 대비 2.5% 상승하였으나, 신흥국 주가는 2.5% 하락
- 한편 3월말 기준 미국, 일본 주가는 전월 대비 각각 2.3%, 4.9% 상승하였으나 독일 주가는 0.3% 하락

[그림 13] 글로벌 주가 추이

주: 선진국과 신흥국은 주가는 MSCI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그림 14] 주요국 주가 추이

주: 미국 주가는 다우존스지수, 일본 주가는 니케이 지수, 독일 주가는 DAX지수 기준
자료: Bloomberg

라. 신용위험

2022년 3월 우리나라 및 글로벌 「신용위험지표」는 모두 하락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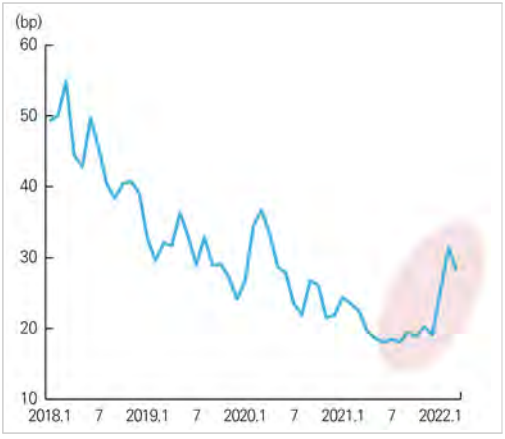
■ **2022년 3월 한국 신용위험지표는 오미크론 확산세 둔화 등으로 하락**

- 2022년 3월말 기준 한국의 CDS프리미엄[9]은 전월대비 3.2bp 하락한 28.2bp를 기록
- 한국의 CDS프리미엄이 하락세를 나타낸 것은 2021년 12월 이후 3개월 만

■ **글로벌 신용위험지표는 지난달 급등세에 따른 조정 압력,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신흥국 채권가산금리[10],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가 모두 하락**

- 2022년 3월말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전월대비 188.2bp 하락한 368.0bp,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는 전월대비 43.0bp 하락한 188.9bp를 기록

[그림 15] 한국 CDS프리미엄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6] 글로벌 신용위험지표 추이

자료: Bloomberg

9) CDS(Credit Default Swap)는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융파생상품으로 채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국가의 신용위험도가 높아질수록 CDS 프리미엄은 상승

10) 신흥국 채권가산금리는 신흥국 채권인덱스(EMBI)와 안전자산인 선진국 채권인덱스 간의 금리 차를 의미. 금융 불안정성 확대로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질 경우 신흥국 채권 가산금리가 높아짐

2. 에너지 및 원자재

가. 국제 가격

3월 「석유」, 「석탄」, 「천연가스」 가격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 **원유 가격은 배럴당 112.4달러(2012년 4월 이후 최고가)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20.2%, 76.1% 크게 상승**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서방국가들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심화되면서 원유 가격이 상승함
- 국제원유 가격(달러/배럴): ('12.4월)113.7 → ('22.1월)83.9 → (2월)93.5 → (3월)112.4

■ **석탄 가격[11]은 톤당 310.5달러로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34.2%, 222.4% 크게 상승**

- 국제유가 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석탄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석탄 가격이 상승함
- 석탄 가격(달러/톤): ('22.1월)196.9 → (2월)231.4 → (3월)310.5

■ **천연가스 가격은 백만비티유(mmbtu)[12]당 18.0달러(2012년 7월 이후 최고가)로 전월대비 6.1%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28.4% 크게 상승**

- 미국 내 천연가스 가격(4.9달러/mmbtu)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4.9%, 90.4% 상승하였고, 유럽 천연가스 가격(42.4달러/mmbtu)은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각각 55.7%, 591.9% 크게 상승
- 천연가스 가격(달러/mmbtu): ('12.7월)18.1 → ('22.1월)14.7 → (2월)17.0 → (3월)18.0

11)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서 석탄 가격[Coal(Australia), port thermal, fo.b. Newcastle, 6000 kcal/kg spot price]은 '22.2월부터 제공하지 않아, '21.3월, '22.1월, 2월, 3월 가격은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에서 제공하는 석탄 가격(연료탄, 호주 뉴캐슬 FOB 기준, ICE기준, 선물가)을 참조함.

12) 비티유(btu: british thermal unit, 영국 열량 단위): 질량 1파운드의 물 온도를 화씨 1도(1℉)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양.

[그림 17] 국제 에너지 가격 추이

주: 1) 에너지 품목별 단위가격은 달러로 표시하며, 석유는 배럴(bbl), 석탄은 메트릭톤(mt), 천연가스는 백만비티유(mmbtu) 단위당 가격임
2)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서 석탄 가격[Coal(Australia), port thermal, fo.b. Newcastle, 6000 kcal/kg spot price]은 '22.2월부터 제공하지 않음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월 「농산물」, 「식품」, 「금속·광물」, 「귀금속」 지수는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상승

■ 농산물, 식품 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7.2%, 11.6%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각각 28.1%, 36.6% 크게 상승

- 농산물 및 식품 중 밀(US HRW, 경질 붉은 겨울 밀), 유채씨유, 대두유, 닭고기, 팜유의 가격이 전월대비 각각 24.5%, 24.0%, 22.6%, 18.0%, 16.7% 가파르게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도 밀(US HRW, 경질 붉은 겨울 밀), 닭고기, 팜유, 야자핵유, 유채씨유의 가격이 전년동월대비 각각 78.0%, 77.2%, 72.4%, 65.1%, 63.6%, 54.7% 크게 상승
- 농산물 지수: ('22.1월)118.5 → (2월)123.9 → (3월)132.8
- 식품 지수: ('22.1월)133.6 → (2월)141.1 → (3월)157.5

■ **금속·광물 지수는 전월대비 7.7% 상승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28.2% 상승**

- 니켈, 아연, 알루미늄, 철광석은 전월대비 각각 41.3%, 9.5%, 7.8%, 6.5% 상승
- 니켈, 아연,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한 공급차질 우려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고, 철광석은 중국 제조업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 증가, 중국 주요 항구의 철광석 재고량 감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등으로 가격이 상승
- 전년동월대비로는 니켈, 주석, 알루미늄, 아연이 각각 106.8%, 62.4%, 59.7%, 41.9% 상승
- 금속·광물 지수: ('22.1월)125.2 → (2월)131.2 → (3월)1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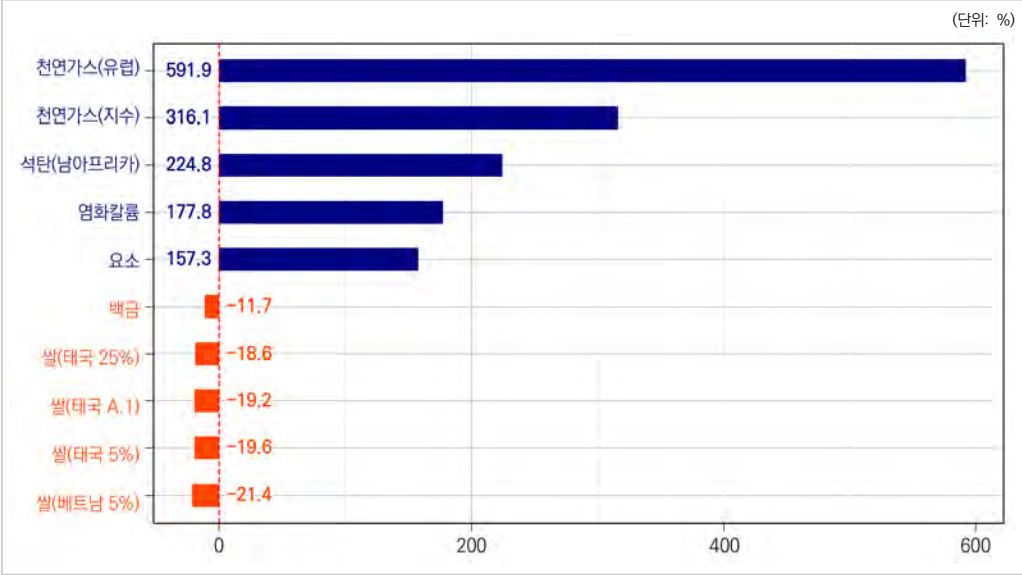
■ **귀금속 지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나타나면서 금, 은의 가격이 상승하여 전월대비 5.3%, 전년동월대비로는 10.3% 상승**

- 금, 은의 가격은 전월대비 각각 4.9%, 7.5% 상승한 반면, 백금의 가격은 0.6% 하락함
- 귀금속 지수: ('22.1월)139.1 → (2월)142.2 → (3월)149.6

[그림 18] 원자재 가격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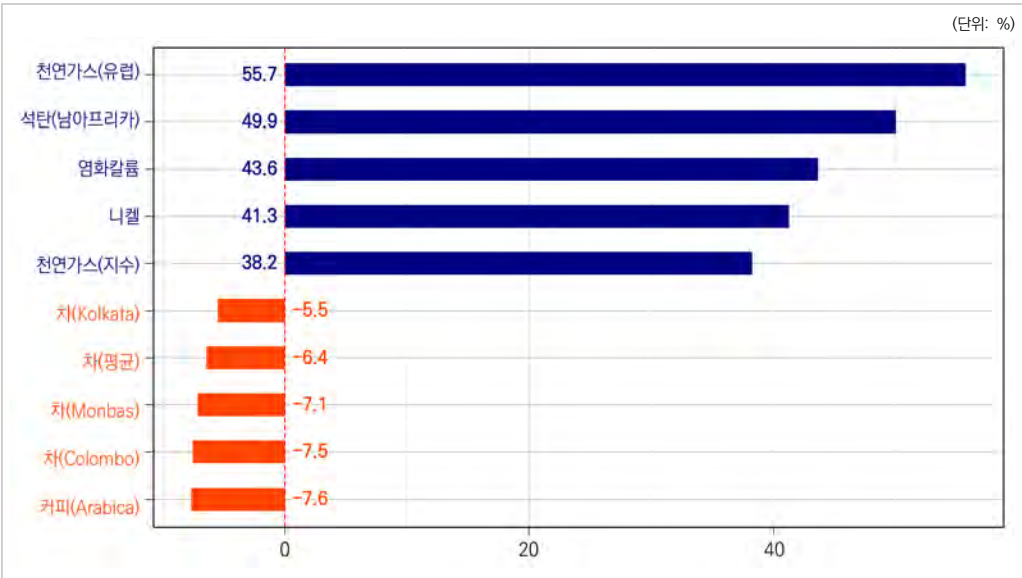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림 19]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상·하위 5개 에너지 및 원자재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그림 20] 전월대비 증감률 상·하위 5개 에너지 및 원자재



자료: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최근 니켈 가격 동향]

■ **3월「니켈」가격은 금속·광물 중 전월대비 및 전년동월대비 모두 가장 급격히 상승**

- 3월 니켈 가격은 전월대비 41.3%, 전년동월대비 106.8% 가파르게 상승
  -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등이 주요 니켈 공급 국가이며, 글로벌 니켈 공급망에서 러시아는 '21년 기준 광산 3위(7.0%), 정제련 4위(4.3%)의 비중을 차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발 공급쇼크로 3월 7일에는 니켈 가격이 톤당 42,995 달러까지 급등하여, 이후 3월 15일까지 거래가 중단되기도 함
  - 니켈 가격(달러/톤): ('22.1월)22,355 → (2월)24,016 → (3월)33,924
- 니켈은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 소재로서, 중국 전기자동차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면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니켈의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
- 런던금속거래소(LME, London Metal Exchange)의 3월 5주차 니켈 재고량은 72,589 톤으로 49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낮은 수준의 재고 상황 지속
  - LME 니켈 재고량(톤): ('22.1월)96,308 → (2월)84,493 → (3월)74,771

[최근 니켈 가격 및 LME 니켈 재고량 추이]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KOMIS)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나. 국내 에너지 수요

2022년 1월 「최종에너지 소비」[13]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모두 증가

■ **최종에너지 소비는 에너지원 중 석유, 전력, 액화천연가스(LNG), 신재생 및 기타, 부문 중 산업, 수송 부문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전년동월대비 6.6% 증가**

- LNG(25.1%), 석유(14.7%) 소비가 전년동월대비 크게 증가한 반면, 도시가스(-2.9%), 석탄(-1.2%), 열(-0.3%) 소비가 감소
- 공공(-10.4%) 부문에서 최종에너지 소비가 전년동월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수송(15.1%), 산업(8.5%) 부문에서 소비가 크게 증가
- 에너지원별 소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석유(14.7, 6.32), 전력(2.1, 0.42), LNG(25.1, 0.31), 신재생 및 기타(4.0, 0.15), 열(-0.3, -0.01), 석탄(-1.2, -0.14), 도시가스(-2.9, -0.49)
- 부문별 소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산업(8.5, 4.78), 수송(15.1, 2.12), 가정·상업(-0.3, -0.08), 공공(-10.4, -0.27)

■ **전월대비로는 에너지원 중 도시가스, 전력, 열 등이 증가하고, 부문 중 가정(18.3%)에서 크게 증가함에 따라 2.4% 증가**

- 가정 부문에서 도시가스와 열, 상업 부문에서 전력, 산업 부문에서 신재생 및 기타, 전력 소비가 증가
- 에너지원별 소비 전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도시가스(16.9, 2.33), 전력(5.4, 0.97), 열(18.6, 0.41), 신재생 및 기타(9.2, 0.32), LNG(-0.1, -0.00), 석탄(-2.4, -0.30), 석유(-2.8, -1.35)
- 부문별 소비 전월대비 증감률(%) 및 기여도(%p): 가정·상업(18.3, 4.01), 산업(-0.3, -0.15), 공공(-12.4, -0.32), 수송(-6.9, -1.15)

[표 1] 에너지원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2019	2020	2021p	2022p				
				1월	12월	1월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합계	231,353	222,563	234,656	21,673	22,555	23,092	6.6	2.4
전년동기대비	-0.9	-3.8	5.4	1.4	7.3	6.6		
석탄	32,057	30,457	31,798	2,709	2,744	2,678	-1.2	-2.4
석유	116,125	109,344	116,713	9,345	11,019	10,714	14.7	-2.8
액화천연가스	2,909	3,602	3,478	268	335	335	25.1	-0.1
도시가스	23,943	23,100	24,287	3,737	3,104	3,630	-2.9	16.9
전력	44,763	43,797	45,875	4,193	4,064	4,283	2.1	5.4
열	2,647	2,770	2,901	587	494	585	-0.3	18.6
신재생 및 기타	8,910	9,493	9,603	834	794	867	4.0	9.2

주: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13) 최종에너지는 산업, 수송, 가정·상업, 그리고 공공 부문 등 최종에너지 소비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로, 최종소비자가 직접 사용한 1차에너지와 전환과정을 거친 2차에너지가 해당되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일반적으로 실물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됨

[표 2] 부문별 최종에너지 소비

(단위: 1,000 to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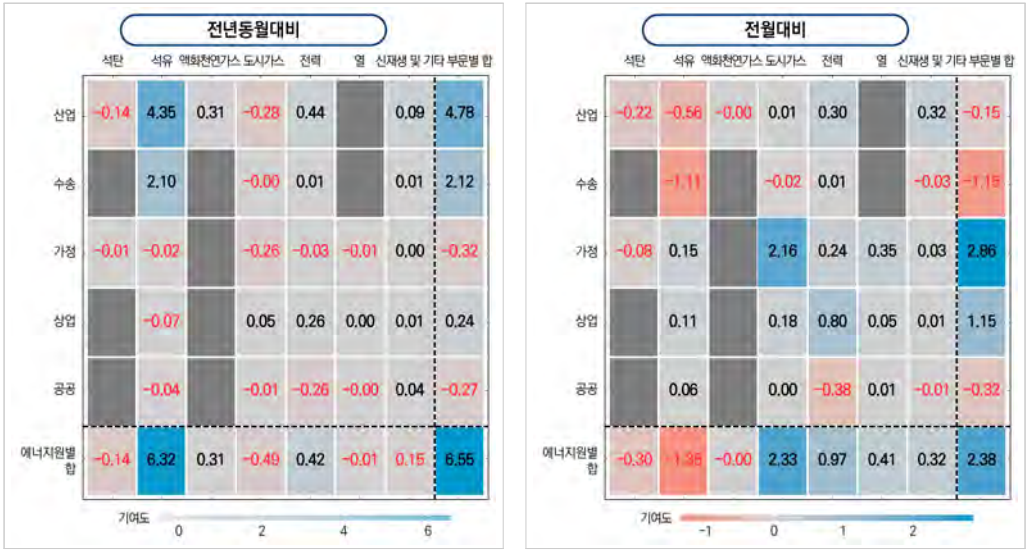
	2019	2020	2021p	2022p			
				1월	12월	1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합계	231,353	222,563	234,656	21,673	22,555	23,092	6.6	2.4
전년동기대비	-0.9	-3.8	5.4	1.4	7.3	6.6		
산업	142,903	137,964	147,995	12,203	13,272	13,238	8.5	-0.3
수송	42,996	39,436	39,782	3,053	3,774	3,514	15.1	-6.9
가정·상업	40,056	39,912	41,322	5,855	4,934	5,837	-0.3	18.3
공공	5,399	5,251	5,557	561	575	503	-10.4	-12.4

주: 2021년,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그림 21] 최종에너지 소비 기여도 행렬

(단위: %p)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월보」 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다. 전력수급 동향

3월 「전력공급예비력」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연료비」가 크게 상승

■ **3월 공급예비력 10.8GW, 전력공급예비율 13.8%로 전력 수급은 안정적※**

- 발전설비용량은 133.5GW로 전년동월대비 3.6% 증가
- 3월 전국의 평균기온은 7.7℃로 평년기온(6.1℃)보다 높고 1973년 이후 세 번째로 높은 3월 기온을 기록했으며, 최대전력은 78.2GW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전력공급안정성은 공급예비력을 기준으로 하며, 공급예비력이 5.5GW 미만으로 낮아질 경우 냉난방온도 관리, 수요관리 제도 시행, 추가 발전소 가동 등 '전력수급 비상조치'를 시행하며 그 이상에서는 안정적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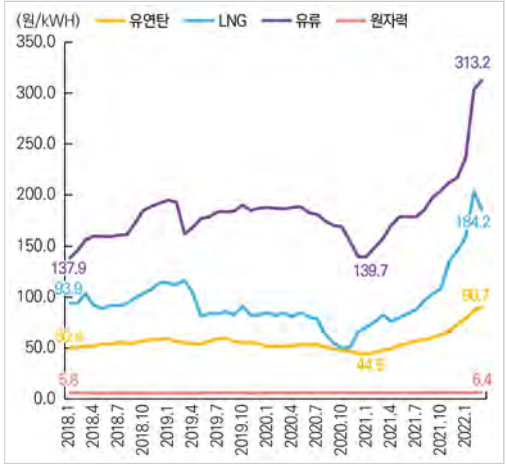
■ **3월 에너지원별 화력 발전의 연료비 단가는 전월대비로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두 배 가까이 상승하여 발전비용 부담이 가중**

- 석탄발전 연료비 단가는 90.7원/kWh로 전월대비 4.1%, 전년동월대비 88.1% 상승했으며, 가스(LNG)발전 연료비단가는 184.2원/kWh로 전월대비로는 9.4% 하락했으나 122.3% 상승
-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에 지급한 1kWh당 정산단가는 1월 137.4원, 2월 160.6원, 3월 151.5원으로 동기간 전력판매단가인 114.8원보다 20% 높음

[그림 22] 월별 발전설비용량 및 전력공급예비율

자료: 전력거래소

[그림 23]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자료: 전력거래소

[2022년 2분기 전기요금]

■ 2022년 2분기 전기요금은 9년 만에 소폭 인상

- 2013년 이후 전기요금은 동결 및 하향조정되었으나, 최근 발전비용 상승요인이 누적되어 일부 상승분을 반영
  - 정부는 기준연료비(4.9원/kWh), 기후환경요금 인상분(2.0원/kWh), 연료비 인상분(33.8원/kWh)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분만 반영
- 인상분을 감안하더라도 최근 5년의 전기요금 변동폭은 크지 않음
  - 주택용 전기요금은 1kWh당 115.8원(예상)으로 금번 인상분을 반영하더라도 2016년의 121.2원보다 낮음
  -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당 111.2원(예상)으로 2016년의 106.0원보다 5.2원 높은 수준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전기요금은 보다 낮아짐

[전기요금 추이]

주: 2022년 2분기 전기요금은 2021년 전력판매단가에 전기요금 인상분 6.9원/kWh를 더한 예상치임
자료: 전력통계월보를 이용하여 정리

■ 국제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발전용 연료비 증가분이 누적되면 한국전력은 전기를 판매할수록 적자가 증가

- 한국전력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2022년 2분기에는 1kWh당 33.8원의 상승요인이 있다고 밝힘
  - 2022년 1월과 2월의 발전용 연료비는 각각 4.0조원과 4.2조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여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월평균 발전용 연료비 2.2조원보다 크게 높기 때문

3월 「전력거래량」은 역대 3월 중 가장 높음

■ **총 전력거래량※은 전년동월대비 5.9% 증가했으며, 전월대비 발전량은 2.5% 증가하여 전력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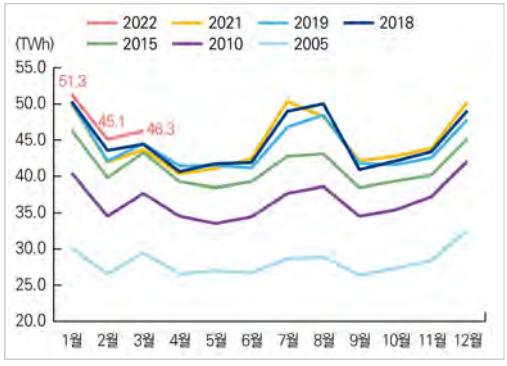
- 금년 전력거래량은 3달 연속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을 상회하여 코로나 19 이전 수준의 회복을 넘어서는 전력수요를 기록

※ 전력거래량은 전력거래소에서 운영하는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된 전력량을 의미하며, 총 발전량에서 발전소의 소내소비량과 가정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자가소비량 등은 제외한 통계임

■ **에너지원별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신재생 및 기타가 12.8% 증가했으며, 가스 8.9%, 석탄 6.6%, 원자력 0.3% 증가**

- 에너지원별 발전량 비중은 가스 35.3%, 석탄 29.1%, 원자력 28.5%, 신재생 및 기타 6.1% 순

[그림 24] 월별 전력거래량



자료: 전력거래소

[그림 25] 에너지원별 발전량 변화

자료: 전력거래소

3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태양광, 바이오, 풍력의 순으로 각각 전년동월대비 14.5%, 18.6%, 7.2%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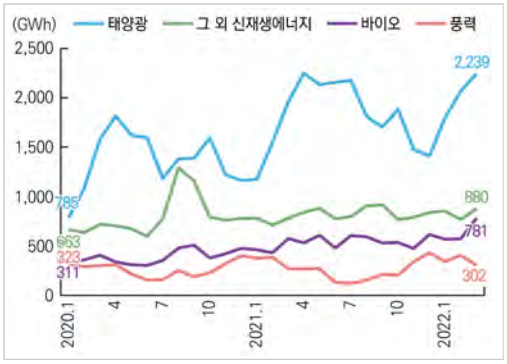
- 태양광은 총 신재생에너지의 53.3%를 차지하며, 바이오와 풍력은 각각 18.6%와 7.2%를 차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현물시장가격은 47,520원/REC로 전월대비 15.3% 하락했으나 전년동월대비로는 31.9% 상승**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량은 현물시장에서는 전월대비 26.1% 감소했으나, 계약시장에서는 35.1% 증가하여 총 거래량은 14.5% 증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물시장 거래보다 장기계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가격은 다소 하락하지만 거래물량은 증가한 것으로 추정

[그림 26] 신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



자료: 전력거래소

[그림 27]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

자료: 신재생원스톱사업정보 통합포털

2월 「전력수요」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년동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5.2% 증가했는데, 전체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수요가 4.9% 상승했기 때문

- 서비스부문 전력수요도 7.5% 증가하여 상업활동이 전년동월대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남

■ 전월대비 총 전력수요는 난방수요 감소와 명절효과로 인해 4.5% 감소

- 명절효과로 인해 산업부문 전력수요가 8.7% 감소했으며 공공부문(-8.9%)과 가정부문(-0.4%)의 전력수요도 감소

[표 3] 부문별 전력수요

(단위: GWh, %)

	2019	2020	2021	2022p			
				2월	1월	2월	전년동월 대비	전월 대비
계	520,499	509,270	533,431	45,188	49,802	47,541	5.2	-4.5
전년동기대비	-1.1	-2.2	4.7	1.5	2.1	5.2		
가정부문	70,455	74,073	77,558	6,686	6,860	6,833	2.2	-0.4
공공부문	24,458	23,623	25,026	2,330	2,639	2,405	3.2	-8.9
서비스부문	145,816	142,881	148,315	13,822	14,629	14,854	7.5	1.5
산업부문	283,705	268,692	281,532	22,350	25,674	23,450	4.9	-8.7

주: 부문별 전력수요는 전력판매량을 의미하며, 2022년 자료는 잠정치(p)

자료: 전력통계속보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3. 부동산

3월 전국의「주택 매매가격지수」변동률은 지난달 대비 상승폭 축소,「전월세가격지수」변동률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국 0.02% 수도권 −0.04% 지방은 0.07%로 지난달에 비해 상승폭 축소**

-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규제완화 기대감이 있는 일부 지역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소폭 축소
- 지방은 경남 0.28%, 전북 0.25%, 광주 0.22% 순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세종 -0.64%, 대구 -0.43% 순으로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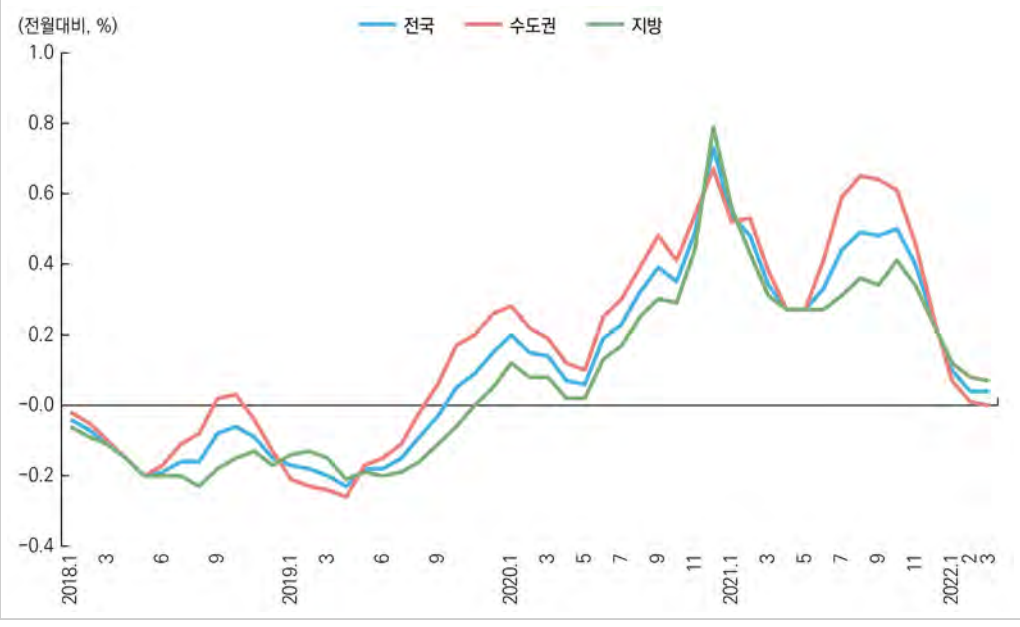
[그림 28] 권역별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추이

주: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은 전국 0.04%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으나, 수도권 0.00%, 지방 0.07%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

- 수도권은 대출금리 부담 등으로 전세가격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나, 월세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세통합지수 변동률은 지난달에 비해 소폭 하락
- 지방은 경기회복 기대감이 있거나, 정주여건 양호한 지역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으나 세종 등 거래심리 위축 지역의 전월세 가격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상승폭이 소폭 축소

[그림 29] 권역별 주택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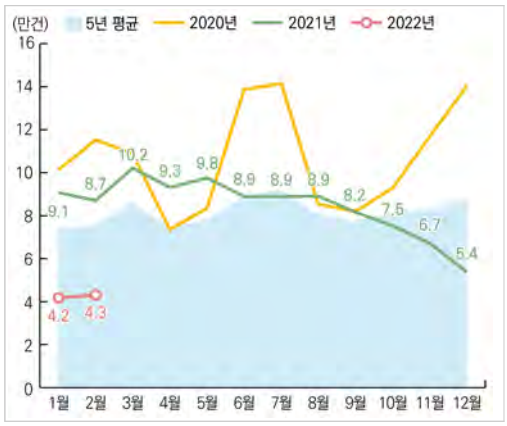
주: 전월세 통합지수 변동률이며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 지방은 수도권 이외 지역임
자료: 한국부동산원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은 전월에 비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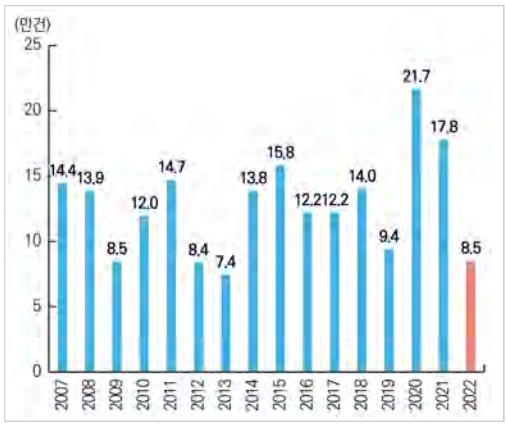
■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 3,179건으로 전월대비 3.5% 증가, 전년동월대비 50.4% 감소**

- 수도권(1.6만건)은 전월대비 0.4% 감소, 전년동월대비 66.0% 감소
- 지방(2.7만건)은 전월대비 6.0% 증가, 전년동월대비 31.7% 감소

[그림 30] 월별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



[그림 31] 연도별 2월 누적 주택 매매 거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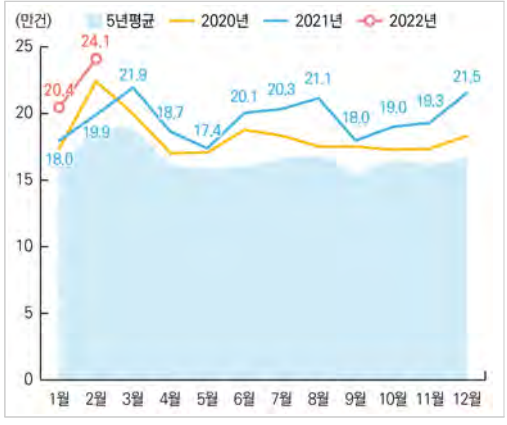


자료: 국토교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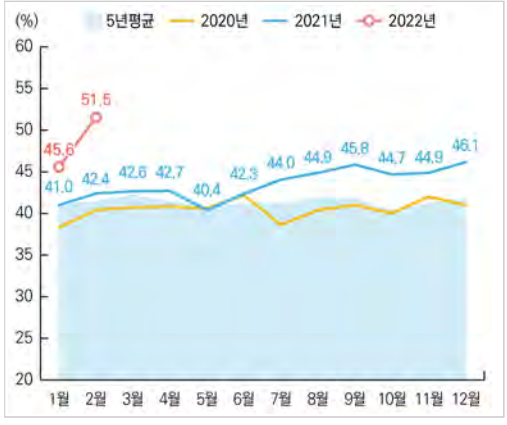
■ 전월세 거래량은 24만 881건으로 전월대비 17.8% 증가, 전년동월대비 21.0% 증가

-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비중은 51.5%로 전월대비 5.9%p 증가, 전년동월대비 9.1%p 증가

[그림 32] 월별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



[그림 33] 월별 전국 월세 비중



주: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자료를 바탕으로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
자료: 국토교통부

PART 2

Economic Trends

해외경제 동향

1. 미국 ····· 79

2. 중국 ····· 83

3. 유로지역 ····· 86

4. 일본 ····· 90

해외경제 동향

미국 경제는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지표 등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상황

- 전산업생산(전월대비, %): ('21. 12월)-0.4 → ('22. 1월)1.4 → (2월)0.5
- 실질개인소비지출(전월대비, %): ('21. 12월)-1.3 → ('22. 1월)2.4 → (2월)-0.4
- PCE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 ('21. 12월)5.8 → ('22. 1월)6.0 → (2월)6.4

중국경제는 실물지표가 호전되었으나 코로나 재확산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1.11월)3.8 → (12월)4.3 → ('22.1~2월)7.5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1.11월)3.9 → (12월)1.7 → ('22.1~2월)6.7
- 종합PMI: ('22년.1월)51.0 → (2월)51.2 → (3월)48.8

유로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진정되는 양상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간 지정학적 리스크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둔화되는 모습

- 산업생산(전월대비, %): ('21.11월)2.4 → (12월)1.2 → ('22.1)0.0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1.12월)-2.1 → ('22.1)0.2 → (2월)0.3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2.1)5.1 → (2월)5.9 → (3월)7.5
- 종합PMI: ('22년.1월)52.3 → (2월)55.5 → (3월)54.5

일본경제는 생산부문이 회복되었으나 소매판매의 위축이 지속되는 모습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1.12월)-1.0 → ('22.1월)-0.8 → (2월)0.1
- 소매판매(전월대비, %): ('21.12월)-0.4 → ('22.1월)-0.9 → (2월)-0.8
- 종합PMI: ('22년.1월)49.9 → (2월)45.8 → (3월)50.3

1. 미국

최근 미국 경제는 유가 급등 등의 영향으로 높은 물가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개인소비지출」 등 일부 지표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상황

■ **2월 중 산업생산은 전기·가스 유틸리티(10.4% → -2.7%)이 줄었으나 제조업 생산이 늘며 증가세가 유지되었고, 선행지표인 ISM제조업지수는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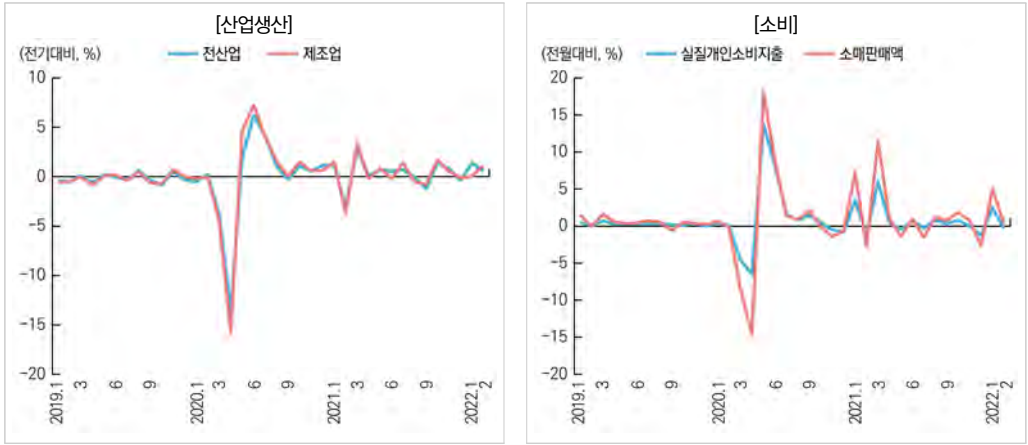
- 전산업생산(전월비, %): ('21. 12월)-0.4 → ('22. 1월)1.4 → (2월)0.5
- 제조업생산(전월비, %): ('21. 12월)-0.1 → ('22. 1월)0.1 → (2월)1.2
- 선행지표인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기준치=50)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3월 중 57.1로 전월(58.6)에 비해 하락

■ **2월 중 소비지표는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인한 실질 구매력 위축* 등의 영향으로 실질개인소비지출이 감소 전환되고 소매판매 증가세도 큰 폭으로 둔화**

- 실질개인소비지출(-0.4%)은 전월(2.4%)의 증가에서 감소 전환되었고, 소매판매(0.3%)는 전월(4.9%)보다 증가세가 큰 폭으로 둔화
- 선행지수인 소비자신뢰지수(컨퍼런스보드 기준)는 3월 중 107.2로 전월(105.7)에 비해 소폭 상승

* 실질개인소득(전월대비, %): ('22. 1월)-0.4 → (2월)-0.2

[그림 1] 미국의 월별 산업생산 및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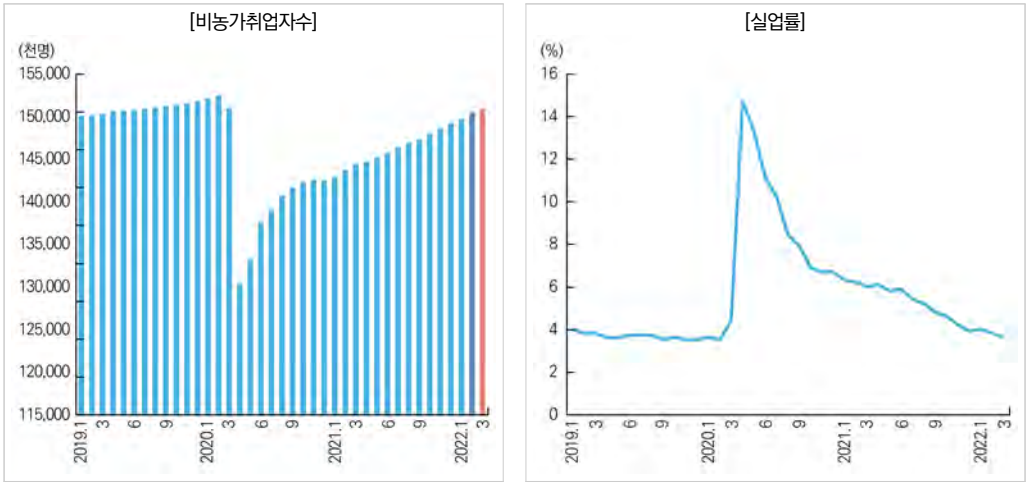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3월 중 노동시장은 비농가취업자수가 전월에 이어 견실한 증가세를 유지하였고, 실업률은 하락하며 개선 흐름이 지속**

- 3월 중 비농가취업자수는 전월대비 43.1만 명 증가하여 전월(75.0만명)보다 증가폭이 둔화되었으나 견실한 개선세가 지속되었고, 실업률은 하락
- 산업별로는 서비스업(36.6만 명), 제조업(3.8만명), 광업(0.3만 명) 등에서 모두 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6%로 전월(3.8%)에 비해 하락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
-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만명): ('22.1월)50.4 → (2월)75.0 → (3월)43.1
- 실업률(%): ('22.1월)4.0 → (2월)3.8 → (3월)3.6

[그림 2] 비농가취업자수 및 실업률의 월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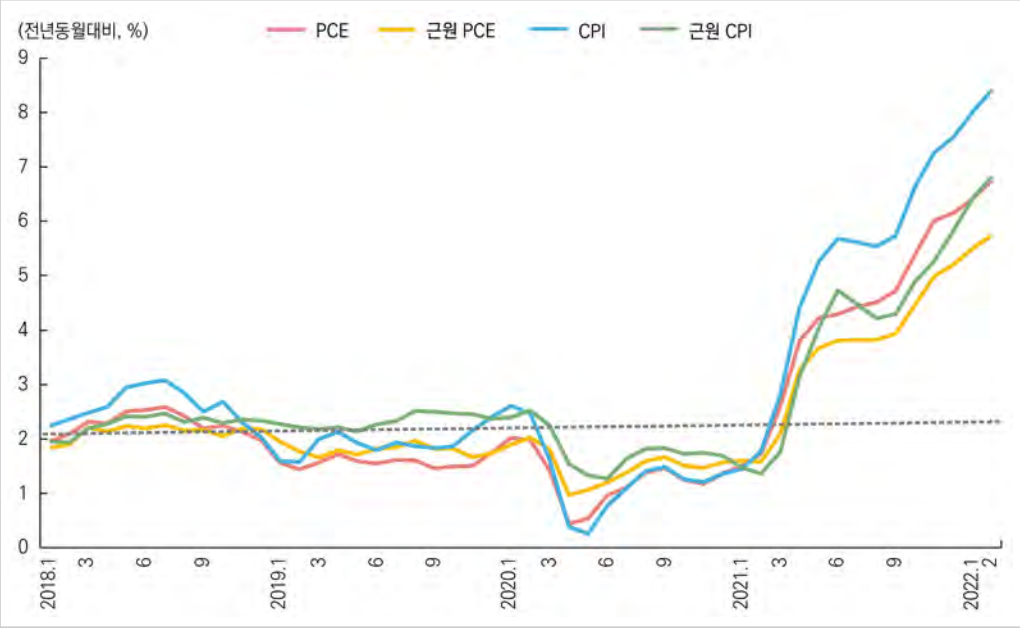


자료: BLS

■ **2월 중 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가격이 급등하며 PCE물가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오름세가 전월보다 확대**

- PCE물가는 가솔린(36.4%), 자동차·부품(23.1%) 등을 중심으로 재화(9.6%) 가격 오름세가 전월(8.8%)보다 확대되고 서비스(4.6%)도 외식·숙박(7.2%) 등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6.4% 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내구재(17.7%), 비내구재(10.2%), 서비스(4.8%) 등에서 모두 전월에 이어 높은 오름세를 보이며 7.9%를 기록
- 근원PCE물가상승률은 5.4%로 전월(5.2%)보다 오름세가 확대되며 1983년 4월(5.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PCE물가지수(전년대비, %): ('21. 12월)5.8 → ('22. 1월)6.0 → (2월)6.4
- 소비자물가지수(전년대비, %): ('21. 12월)7.0 → ('22. 1월)7.5 → (2월)7.9
- 기대인플레이션(미시건대 서베이 기준, %): ('22.1월)4.9 → (2월)4.9 → (3월)5.4

[그림 3] 미국의 개인소비지출(PCE)물가상승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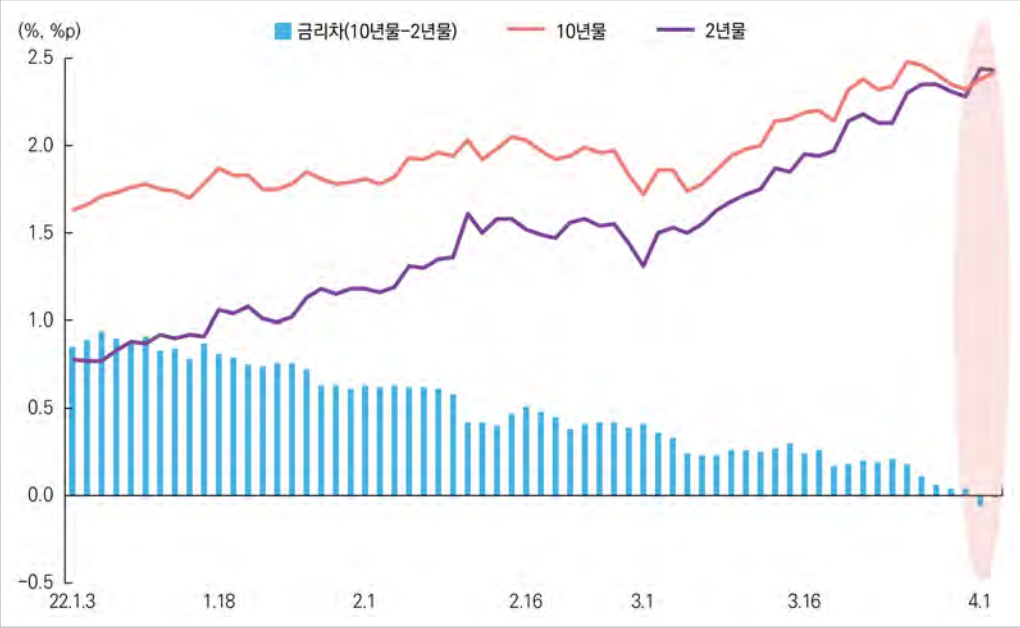
주: PCE(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물가지수는 개인이 미국에서 소비한 모든 품목의 평균 가격 수준을 나타내며,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 **3월 중 시장금리는 장기금리(10년물)가 연준의 조기 긴축 가능성 부각, 높은 물가상승률 지속 등으로 상승하는 가운데 단기금리(2년물)가 장기금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장단기 금리차가 전월보다 축소**

- 장기금리(10년물 기준)는 인플레이션 압력 고조와 Powel 연준 의장의 기준금리 50bp 이상 인상 가능성 언급, 높은 물가상승압력 지속 등으로 상승하며 월평균 2.13%를 기록(전월대비 0.20%p 상승)
- 2년물 금리는 장기금리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월(1.44%)보다 0.47%p 상승한 1.91%를 기록하였고, 4월 들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
- 장기금리(10년물, 월평균, %):('22.1월)1.76 → (2월)1.93 → (3월)2.13
- 단기금리(2년물, 월평균, %): ('22.1월)0.98 → (2월)1.44 → (3월)1.91
- 기간금리차(국채10년물-2년물,%p):('22.1월)0.78 → (2월)0.49 → (3월)0.22

[그림 4]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와 기간금리차



자료: FRB St. Louis 데이터베이스

2. 중국

중국경제는 생산·소비 등 실물 지표가 호전되었으나 3월 들어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하락

■ 1~2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1~2월 중국의 산업생산은 광업(9.8%), 제조업(7.3%), 전기·가스·수도업(6.8%)이 모두 늘어나며 큰 폭으로 증가
- 1~2월 산업생산은 2021년 전력난 이후 6월(8.3%)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시현
- 산업별로 산업로봇(29.6%), 자동차(11.1%) 생산이 늘고 조강(-10.0%), 시멘트(-17.8%) 생산이 감소
- 산업생산(전년동월대비, %): ('21.11월)3.8 → (12월)4.3 → ('22.1~2월)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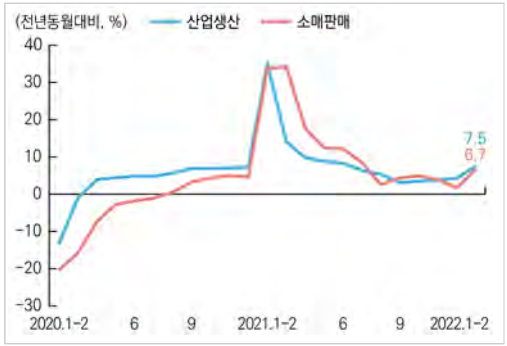
■ 1~2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 중국 최대의 명절인 춘절 연휴(2022.1.31.~2.6)와 베이징 올림픽(2022.2.4.~2.20)의 영향으로 소비가 큰 폭으로 늘어남
- 소비유형별로 상품(6.5%), 외식업(8.9%)의 수요가 확대되었고, 품목별로는 유가 상승의 여파로 석유제품(25.6%)에서 판매가 늘어남
- 소매판매(전년동월대비, %): ('21.11월)3.9 → (12월)1.7 → ('22.1~2월)6.7

■ 1~2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설비투자는 12.8% 늘어나 2021년 4월(9.0%) 이후 9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고 건설투자는 전월보다 증가 폭이 확대되어 12.4% 상승
- 고정자산투자(동년누적치, 전년동월대비, %): ('21.11월)5.2 → (12월)4.9 → ('22.1~2월)12.2

[그림 5] 중국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그림 6] 중국 고정자산투자 추이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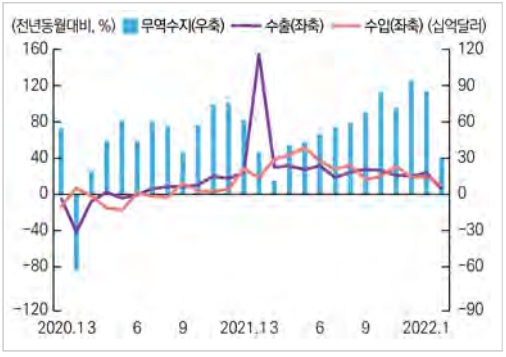
■ 2월 중국의 「수출」 과 「수입」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기·기계제품의 수출과 원자재 수입의 증가세가 약화되며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율이 하락
- 수출(전년동월대비, %): ('21.12월)20.9 → ('22.1월)24.1 → (2월)6.2
- 수입(전년동월대비, %): ('21.12월)19.5 → ('22.1월)19.8 → (2월)10.4
- 수출(2,174억 달러)이 수입(1,868억 달러)을 초과하여 무역수지는 305.8억 달러 흑자를 기록
- 무역수지(억달러): ('21.12월)943.8 → ('22.1월)853.7 → (2월)305.8

■ 2월 중국의 「도시 조사실업률」은 5.5%로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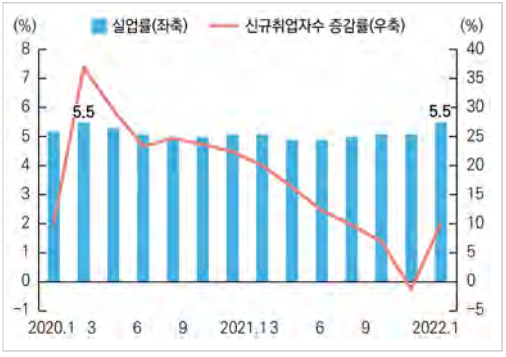
- 2월 중국의 도시 조사실업률은 2021년 2월과 동일한 수준이나 1월에 비해서는 0.4%p 증가
- 실업률(%): ('21.12월)5.1 → ('22년.1월)5.1 → (2월)5.5
- 전반적인 실업률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16~24세 인구 실업률이 15.3%을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2.2%p 상승
- 2월 중국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누적치)는 163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 증가

[그림 7] 중국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8] 중국 실업률 및 신규취업자수 추이



자료: Bloomberg

■ 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2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돼지고기(-45.5%) 등 식료품 가격이 3.9% 하락하였으나, 식료품 외 물가가 2.1% 상승하여 상승률이 전월 수준을 유지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1.12월)1.5 → ('22년.1월)0.9 → (2월)0.9
- 중국의 생산자물가는 2021년 11월에 13.5%까지 상승하였으나 4개월 연속 감소하여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8.8% 상승
- 중국 정부의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한 원자재 시장 개입 조치에 따라 공장 출고가가 안정되며 물가 상승압력이 둔화됨
- 생산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1.12월)10.3 → ('22년.1월)9.1 → (2월)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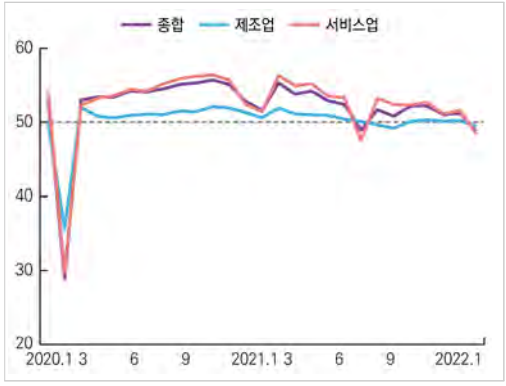
■ 3월 중국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하락

- 3월 중국의 종합PMI는 코로나19가 중국 재확산으로 주요 도시들이 봉쇄된 영향으로 전월보다 2.4p 하락하여 48.8을 기록
- 2021년 8월(48.9) 이후 7개월 만에 기준선(50)을 하회
- 종합PMI: ('22년.1월)51.0 → (2월)51.2 → (3월)48.8
- 3월 중국의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는 각각 49.5와 48.4를 기록하면서 기준선(50.0)을 밑도는 모습

[그림 9] 중국 물가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10] 중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3. 유로지역

유로지역은 실물 및 경기지표가 약화되는 등 회복세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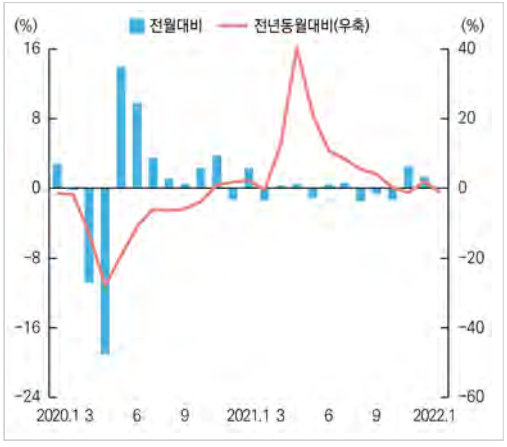
■ 2022년 1월 유로지역 「산업생산」은 전월과 같은 수준

- 비내구소비재만 3.1% 증가하였으며, 자본재(-2.4%), 내구재(-0.5%), 중간재(-0.3%)는 감소 전환
- 산업생산(전월대비, %): ('21.11월)2.4 → (12월)1.2 → ('22.1)0.0

■ 2022년 2월 유로지역 「소매판매」는 0.3%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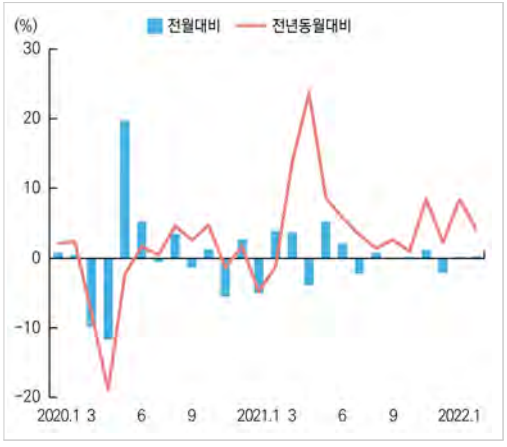
- 국제유가 급등의 영향 등으로 차량연료 판매(3.2%)가 증가하였으나, 음식료품 판매(-0.5%)는 감소
- 유로지역 소매판매(전월대비, %): ('21.12월)-2.1 → ('22.1)0.2 → (2월)0.3

[그림 11] 유로지역 산업생산 추이



주: 건설업 제외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2] 유로지역 소매판매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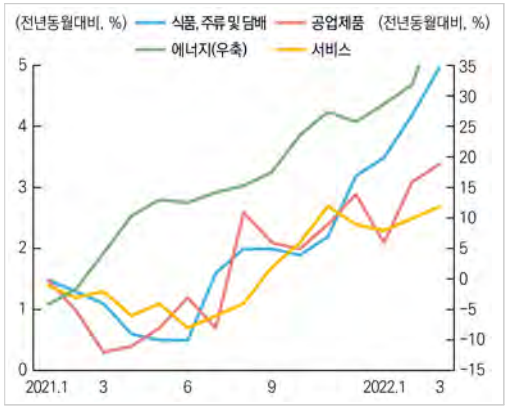
■ 2022년 3월 유로지역 「소비자물가」는 7.5% 상승

-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에너지가격(44.7%)의 오름세 지속, 가공식품 (7.8%) 등 음식료품 가격 상승 등에 기인하여 5개월 연속 최고치 경신
-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대비, %): ('22.1)5.1 → (2월)5.9 → (3월)7.5

[그림 13] 유로지역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그림 14] 유로지역 품목별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Eurost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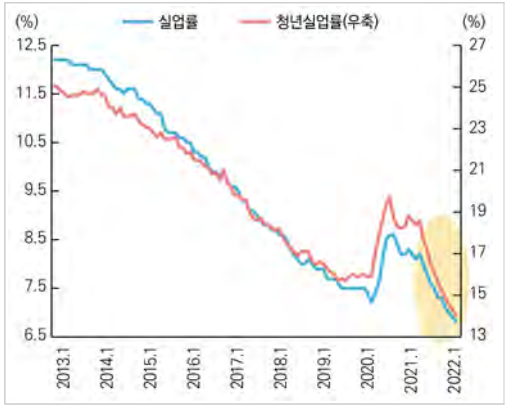
■ 2022년 2월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6.8%를 기록

- 실업률은 2021년 7월(8.6%)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나타내며 2022년 2월 유로존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
- 유로지역 실업률(%): ('21.12월)7.0 → ('22.1)6.9 → (2월)6.8

■ 2022년 3월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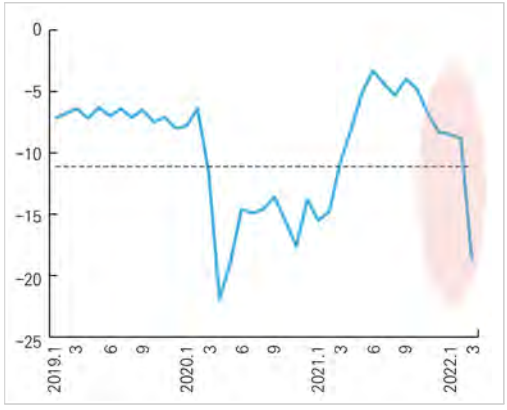
- 2022년 3월 중 소비자신뢰지수는 신규확진자 수 증가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18.7을 기록하며 13개월만에 기준선(-11.1) 하회

[그림 15] 유로지역 실업률 추이



자료: ECB, Blooomberg

[그림 16] 유로지역 소비자신뢰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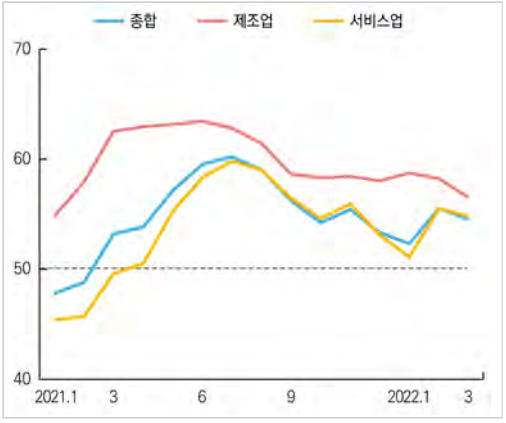
주: 점선은 장기평균치(-11.1)이며, 소비자신뢰지수가 장기평균치보다 낮으면 경제상황과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소비자가 많다는 의미

자료: EU 집행위

■ 2022년 3월 유로지역 「종합PMI」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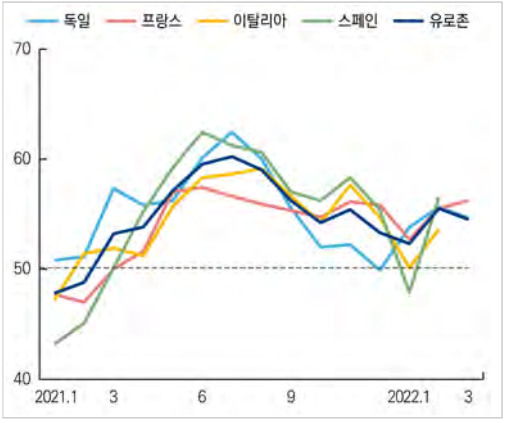
- 유로지역 종합PMI: ('22.1)52.3 → (2월)55.5 → (3월)54.5
- 유로지역 제조업PMI: ('22.1)58.7 → (2월)58.2 → (3월)56.5
- 유로지역 서비스업PMI: ('22.1)51.1 → (2월)55.5 → (3월)54.8

[그림 17] 유로지역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그림 18] 유로지역 국가별 종합 PMI 추이



자료: Bloomberg, Mar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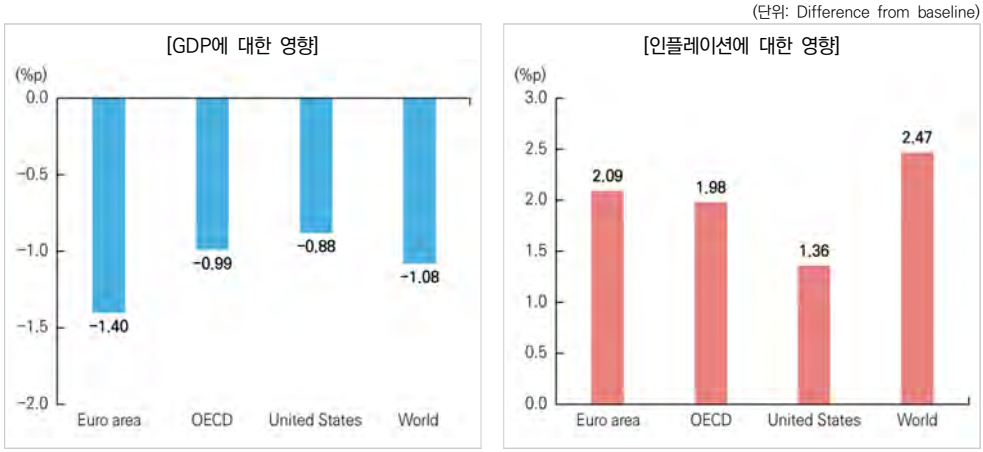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유로경제 전망]

■ 유럽지역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성장률이 1.4%p 하락할 전망

- OECD(2022.3월 세계경제전망)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세계 성장률이 둔화되며, 특히 국경을 접하고 있는 유럽경제가 받는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 유럽은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높은 1.4%p 하락
  - 주요국 성장률 하락폭(%p): 세계(1.08), OECD(0.99), 미국(0.88), 유럽(1.4)
  - 주요국 인플레이션 상승폭(%p): 세계(2.47), OECD(1.98), 미국(1.36), 유럽(2.03)

[글로벌 생산 및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단위: Difference from baseline)



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처음 2주 동안 나타난 시장의 충격이 최소 1년 동안 지속되고 러시아의 경기침체가 나타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함

자료: OECD

■ 러시아에서 EU로의 에너지 수출이 중단되는 경우 더 큰 충격이 발생

- 에너지는 단기적으로 공급을 대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충격의 영향이 즉각적으로 발생함
  - 실제로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의 가스 가격은 1월대비 170% 상승하였는데, 이는 시나리오에서 가정한 가스 가격 충격의 두 배 수준
- 유럽 가스 가격이 170% 상승하면, 유럽 인플레이션은 추가적으로 1.25%p(유로지역 3.5%p) 높아지고 유럽 성장률은 0.5%p 이상 감소
- 투입-산출 분석에서는 에너지[1] 수입이 20% 감소하면 유럽의 총생산이 1.0%p 감소
-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문은 국내 에너지 생산, 항공 운송, 화학 및 금속 제조업이며, 국가별로 영향의 정도는 다름

4. 일본

일본경제는 생산이 소폭 증가하고 구매자관리지수(PMI)가 반등하였으나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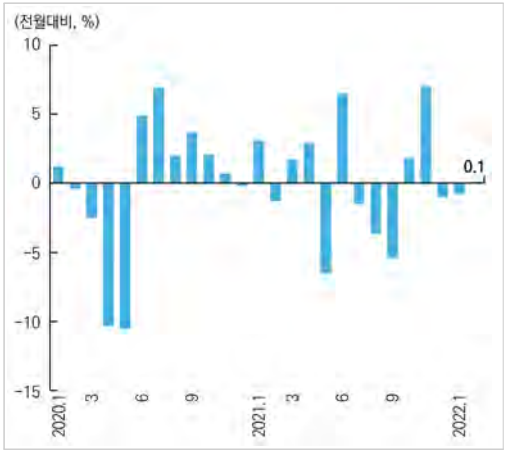
■ 2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은 전월대비 증가

- 자동차공업(10.9%), 자동차공업을 제외한 수송기계공업(7.9%), 범용·업무용 기계공업(1.2%)에서 증가
- 화학공업(무기·유기 화학물질 및 의약품 제외)(-9.6%), 무기·유기화학공업(-2.5%)에서 감소
- 출하(-1.3%)는 감소한 반면, 재고(1.9%)와 재고율(3.0%)이 모두 증가
- 광공업 생산(전월대비, %): ('21.12월)-1.0 → ('22.1월)-0.8 → (2월)0.1

■ 2월 일본의 「소매판매액」은 전월대비 감소

-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외출 자제로 의복 관련 판매가 둔화되며 소매판매가 축소됨
- 소매판매(전월대비, %): ('21.12월)-0.4 → ('22.1월)-0.9 → (2월)-0.8
- 직물·의복·소지품(전월대비, %): ('21.12월)-0.4 → ('22.1월)-2.2 → (2월)-5.8

[그림 19] 일본 광공업 생산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0]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1) 화석 연료, 정제 연료 제품, 전기 및 가스

■ 2월 일본의 「수출」과 「수입」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증가

- 수출은 철강(45.5%), 광물성연료(139.3%), 자동차(8.3%) 등에서 늘어남
- 수출(전년동월대비, %): ('21.12월)17.5 → ('22.1월)9.6 → (2월)19.1
- 수입은 석유(93.2%), LNG(65.3%) 등 원자재와 의약품(100.7%)에서 큰 폭으로 확대
- 수입(전년동월대비, %): ('21.12월)41.2 → ('22.1월)38.8 → (2월)34.1
- 수출과 수입은 각각 7조 1,901억 엔과 7조 8,583억 엔을 나타내었으며 무역수지는 6,683억 엔 적자를 보임
- 무역수지(십억엔): ('21.12월)-589 → ('22.1월)-2,199 → (2월)-670

■ 2월 일본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상승

- 휴대전화 요금 인하로 교통·통신(-7.4%) 가격이 내렸지만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에너지(20.5%) 및 광열·수도(15.3%)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
- 다만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0% 하락하여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의 차이가 확대되는 모습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대비, %): ('21.12월)0.8 → ('22.1월)0.5 → (2월)0.9
- 근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전년동월대비, %): ('21.12월)-0.7 → ('22.1월)-1.1 → (2월)-1.0

[그림 21] 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22]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

자료: Bloomberg

■ 2월 일본의 「실업률」은 2.7% 수준

- 비농업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37만 명 감소('21.1월: -23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전월보다 0.1%p 감소
- 비농업취업자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21.12월)9 → ('22.1월)-28 → ('22.1월)-37
- 실업률(%): ('21.12월)2.7 → ('22.1월)2.8 → ('22.1월)2.7

■ 3월 일본의 「종합PMI(구매관리자지수)」는 상승

- 종합PMI는 2021년 12월 이후 감소세를 보였으나 2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며 2월보다 4.5p 상승하여 50.3을 시현
- 제조업PMI와 서비스업PMI도 각각 전월대비 상승하여 54.1과 49.4를 기록하였으나 서비스업은 여전히 기준선(50)을 밑도는 모습
- 종합PMI: ('22년.1월)49.9 → (2월)45.8 → (3월)50.3
- 제조업PMI: ('22년.1월)55.4 → (2월)52.7 → (3월)54.1
- 서비스PMI: ('22년.1월)47.6 → (2월)44.2 → (3월)49.4

[그림 23] 일본 비농업취업자수 증감 및 실업률 추이

자료: Bloomberg, 총무성

[그림 24] 일본 PMI 추이

자료: Bloomberg

주요 경제정책 동향

기획재정부는 2022.3. 25(금)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D.N.A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을 발표[1)]

■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 전략투자방향(18.8)」과 「D.N.A.+BIG3: 도미노 확산 전략('19.8)」, 「한국판 뉴딜 1.0('20.7)·2.0('21.7)」을 통해 D.N.A.(Data, Network, AI) 집중 육성**

- (데이터) 14.7만개의 공공데이터 개방,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20.1)을 통한 가명정보·마이데이터를 도입하였고 2021년 10월 「데이터 산업법」을 제정
- (네트워크) 85개시 주요 행정동에 5G 구축, 5대 분야* 융합서비스 시범운용 및 실증 실시, 이음5G(특화망)** 구축 주체 확대, 규제개선을 추진

  * 자율주행자, 스마트공장, 실감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 데이터를 중앙의 데이터센터로 전송하는 대신 인근 소형서버를 활용해 처리함으로써 데이터 처리시간 및 트래픽 과부하를 감소하는 대신 보안은 강화한 Mobile Edge Computing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인공지능) 381종의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대형 R&D 추진, 인공지능 국가전략('19.12) 수립, AI기술의 산업 적용 프로젝트 추진, 지능형 정부 구현 등 실시

■ **정부는 이와 같이 구축된 D.N.A 기술 인프라를 BIG3(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산업으로 연계·확장하고 신경제의 창출 및 주요 산업 거점에 적용·확산할 계획**

- (BIG3와 연계)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성능 인공지능 반도체 등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국책 R&D 사업 본격화, 자율주행·부품 전장화·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 D.N.A를 활용한 미래 헬스케어 기반 조성에 주력
- (신경제 창출) 민간중심 디지털 대전환 유도, 핵심기술에 대한 중점 투자와 시장 전망에 기반한 산업 육성, 공유경제·모빌리티 플랫폼의 구축,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산업경쟁력을 확보할 계획
- (거점별 적용 및 확산) 자율주행도시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의 확대,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디지털 유통혁신과 스마트팜·축사·양식 보급을 통한 생산성 증대, 제조업에 ICT기술 융합과 탄소중립을 위한 스마트그린 산업단지의 조성, 디지털기반 비대면 교육·직업훈련 인프라의 확충 등 추진

1) 기획재정부, “제20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22.3.25.

주요 경제정책 동향

금융위원회는 2022.3.7(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을 발표[2)]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사유를 설명함으로써 경영투명성을 개선토록 유도하는 제도**

■ **공시의무는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있으나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6년 전 코스피 상장사에 적용될 예정이며 확대 적용에 앞서 가이드라인을 보완**

- (① 물절분할 관련 주주보호 원칙 신설) 합병·영업양수도·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분할(물적분할* 포함)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부터 주주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을 신설

  * 물적분할이란 모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로 만들고 자회사의 주식100%를 소유하여 지배권을 확보하는 기업분할 제도로, 분할회사 주주가 신설회사의 발생신주를 보유지분에 비례하여 취득하는 인적분할과 구분됨

  ** 물적분할이 지배주주의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없이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자회사가 상장될 경우 모회사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모회사의 주가하락 등으로 인해 소액주주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음

- (②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시 설명의무 강화)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시 「상법」 제398조 및 제542조의9 제3항 등에 따라 이사회가 사전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다수의 거래가 기간·한도 등을 포괄적으로 의결함으로써 주주가 정확히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조치

- (③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구체화 및 감사위원회 설치) 현행 대표이사 선임절차만 나열하는 방식에서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의 주요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개정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

  * 승계정책의 수립 및 운용주체, 후보자 선정·관리·교육 등 정책의 주요내용

2) 금융위원회,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2.3.7.

nabo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2022년 4월호 | 통권 제28호

발행일 2022년 4월 27일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02-2070-3114)
제 작 ㈜케이에스센세이션(02-761-0031)

© 국회예산정책처, 2022

NABO STATS
재정경제통계시스템

www.nabostat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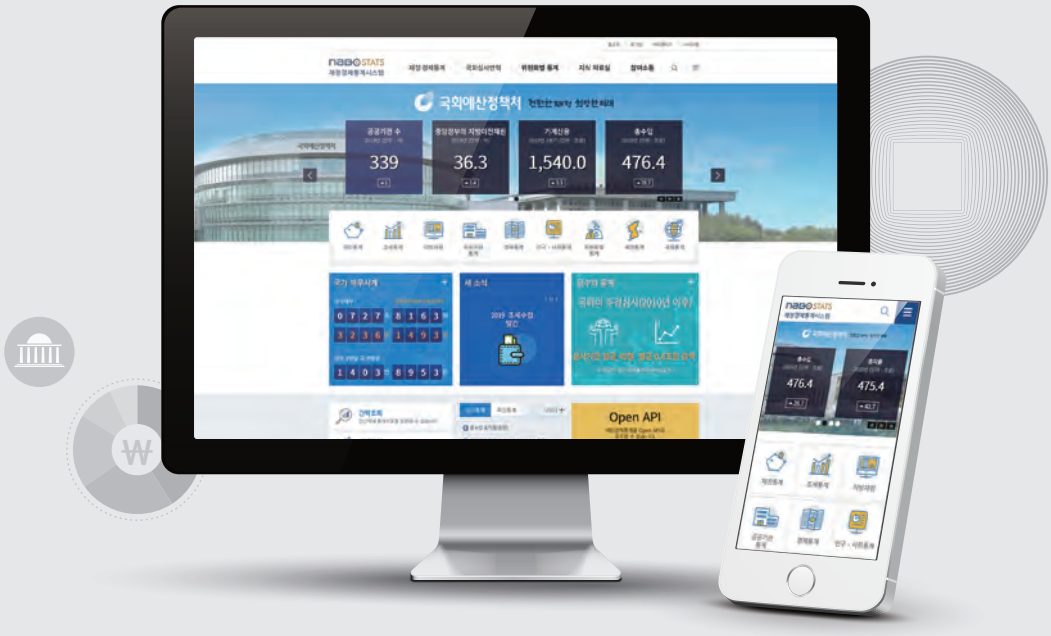
NABOSTATS(재정경제통계시스템)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의정활동 및 학술연구에 필요한 재정·경제 통계,
국회의 예·결산 심사연혁 등을 One-Stop으로 제공하는 **통계정보시스템**입니다.

재정·경제 통계

예·결산 심사연혁 제공

국제통계 (OECD·IMF 등)

북한통계



* NABOSTATS의 모든 통계정보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엄선된 주요 통계는 매년 경제재정수첩, 조세수첩 등 책자로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372-001546-08
ISSN	2734-0287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